

KMI 동향분석

VOL.198

2024 APRIL

발간년월 2024년 4월(통권 제19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감 수 김민수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국민의 80% 이상,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인식

- KMI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

김태한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 전문연구원
(thkim@kmi.re.kr/051-797-4783)

백진화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 전문연구원
(jhbaek@kmi.re.kr/051-797-4545)

김주현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 실장
(jhkim@kmi.re.kr/051-797-4636)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실시한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이다. 이번 호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국가와 해양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83.2%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양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해양강국이 실현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수출 등 경제도약 기반 마련’(71.9점), ‘국가 경쟁력 강화’(71.2점), ‘안전한 수출입 물류망 확보’(71.1점), ‘수산 선진국 도약 기여’(71.0점)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의 수립’,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R&D확대’라는 응답이 각각 37.2%, 36.7%로 높게 나타났다.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해양수산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75.5%가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국토와 바다를 지킴’, ‘세계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식량 안보 기여’, ‘세계 무역 네트워크 통합’, ‘지역발전에 기여’ 순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평가되었다. 국민은 ‘해양수산’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바다/바닷가/해변’(23.9%), ‘선박/배’(19.1%), ‘물고기/생선’(16.9%) 순으로 꼽았다. 해양수산 분야 관심 항목과 관련해서는 ‘해양영토’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수산물 식품안전’이 각각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환경 및 안전보호, 식량안보 등 해양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올해 결과는 70.2점으로 5년 전 조사 결과인 63.9점(2019년) 대비 6.3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도 국민의 79.4%가 ‘가치 있음’으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해양수산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과 취업, 그리고 창업을 지지하는 정도는 45.2%, 47.1%, 43.5%로 나타나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소폭 상승하여 해양수산 분야로의 진입에 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진입을 위한 인식 측면의 장벽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해양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수한 분야로는 ‘선박(조선·해양 플랜트)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55.8%), ‘항만 인프라 및 물동량 확보 수준’(43.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관리 수준’(44.4%),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및 어민 복지 수준’(34.8%) 순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에 대한 평가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어촌과 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해졌다’라는 평가가 7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국제정세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71.0점), ‘남·북극 빙하 면적 감소가 심해지면서 환경보호 인식이 증가하였다’(69.8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 국제정세 변화, 환경보호 등 거시환경 변화가 해양수산 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 분야 인식’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70.4%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안가의 문제점으로는 ‘폐어망, 생활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81.6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노력해야 하는 부문으로는 ‘해양오염 단속·처벌 규정 강화’(45.2%)가 꼽혔다. 해양관광과 관련해서 여행목적으로 바닷가를 방문한 횟수는 연간 ‘2~3회’가 37.4%, 여행 기간은 ‘2~3박’이 35.2%로 가장 높았다. 바닷가 여행 시 20~30대는 ‘해양테저스포츠 활동’, ‘해수욕’을, 50~60대는 ‘유람선·크루즈 탑승’과 ‘해산물 먹거리 관광’, ‘해안 리조트/호텔 체류’와 ‘해산물 먹거리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가 여행 시 불편 사항은 4년 연속 ‘높은 이용요금’(40.1%)과 ‘교통 접근성 불편’(2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관광편의 시설 부족’(13.2%),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11.7%), ‘주변 환경 청결 미흡’(6.9%)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 분야 인식’의 경우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 오징어, 김, 광어, 새우, 갈치, 연어 순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고등어’가 1위를 차지하였다. 선호하는 생선회는 광어, 연어, 우럭, 참돔, 방어, 도미/돔, 오징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국산 수산물이 수입 수산물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나, 우수 평가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2023년 68.7점에 비해 2.6점 하락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도는 45.9%로 전년 대비 3.9%p 하락하였다.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수입산 수산물 검사 검역 강화’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1.3%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36.5%)이 여성보다 10.3%p 높은 의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40대 36.5%, 50대 32.8%)가 가장 높았고 20대(26.9%)는 가장 낮았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텃세’(25.5%),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21.9%), ‘귀어·귀촌의 정보 부족’(21.2%) 등은 귀어·귀촌 시 걱정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해운·물류 분야 인식’의 경우 국민은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77.2점)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있다’(75.9점)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해운산업이 국가 수출입 화물 운송 산업에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해운 분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선박 화물운송 증가’(72.0점)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약 59.1% 정도가 지난 1년간 연안여객선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운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는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해운·해사 안전’,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만 분야 인식’의 경우 도시 인근에 항만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56.9%로 보통(37.5%), 부정(5.6%)을 앞섰다. ‘긍정’이라고 견해를 밝힌 응답자(56.9%)는 ‘항만이 지역발전에 기여’(63.1%)하거나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51.8%)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국민(5.6%)은 부정적인 견해의 이유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49.7%)을 꼽았다. 국민은 향후 항만이 ‘국제무역 중심항’과 ‘제조·생산 물류 유통 등 복합기능 중심항’의 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 항만에 대해 ‘우리나라 항만을 통한 화물 처리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항만 분야에서 ‘환경오염 저감’(40.9%), ‘항만과 도시와의 상생발전(31.8%)’, ‘항만 지능화와 자동화’(20.2%) 등의 순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5년 전인 2019년과 2024년의 해양수산에 관한 국민인식 변화를 비교해보면,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2019년 대비 2024년에 점수가 상승하여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은 해양수산이 ‘세계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이며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고 ‘국토와 바다를 지킨다’는 의견에 관해 2019년 대비 각각 8.8점, 8.7점, 8.7점 높게 평가했다. ‘해양수산이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중요하다’는 인식과 ‘국토와 바다를 지킨다’는 의견은 2024년에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해양이 지닌 자연적, 국가안보적 역할과 기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직접적인 해양 이용과 활동에 관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내 해안 방문 횟수를 설문한 결과, 2019년 45.1점에서 2024년 53.9점으로 2019년 대비 5.8점 상승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안에 방문한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해안 체류 기간 역시 2019년 37.2점에서 2024년 45.9점으로 8.6점 상승해 바닷가에서 머무는 기간도 2019년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4년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종합평가’는 해양수산 발전 가능성, 키워드, 해양수산 인식과 정책 체감도의 간극, 적절한 홍보 매체의 활용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양수산의 관심도와 발전가능성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수산’, ‘해양’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가운데,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해양’이 ‘수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은 해양 분야의 ‘환경 및 자원’과 수산 분야의 ‘수산물 식품안전’ 관련 항목에서 관심도와 발전 가능성을 모두 높게

평가해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정보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요 키워드 측면에서 2024년 해양수산 분야 키워드는 ‘환경’과 ‘안전’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은 해양수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해양환경 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사안전 제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환경과 안전 관련 분야를 꼽았다. 따라서 해양수산 정책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과 안전 관련 분야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와 해양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해양국가로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높은 인식과 관심도 대비 낮은 정책 체감도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 국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해양 강국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은 39.3%로 낮게 나타나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양수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에 관해서도 ‘체감한다’는 응답이 국민 10명 중 4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해양수산에 관한 정책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해양수산 인식과 관심도에 부합하도록 양자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보 측면에서 연령과 직업, 성별 등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해양수산 정보 접촉경로로 50대 이상은 TV/라디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SNS는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이에 비해 20대에서는 신문보다 SNS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부문의 중요도와 관심도, 정보 접촉경로 등을 세분화하여 홍보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홍보 효과가 낮은 분야 또는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적·전략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 개요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8년 연속 실시

■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국민 인식을 고려한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해양수산 정책 수립 필요성 증가

- 실효성 있는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정부 현안의 인지도 및 정책 수요 파악이 필요함
- 이에 KMI는 해양수산 전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정책현안 인지도, 향후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해양수산 분야 비전 설정 및 정책 방향에 활용하고자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8년 연속 실시하였음

■ KMI는 개원 4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의 가치와 분야별 인식, 현안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해양과 국가'에 관한 인식 등 전반적인 비전에 관한 신규 문항을 포함

- KMI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거주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3,000명 대상으로 국가와 해양, 해양 일반인식, 분야별 해양수산 인식 등 설문 문항을 확대하였음(신뢰도 95%에서 표본 오차 $\pm 1.79\%$ 포인트)

〈표 1〉 조사 설계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지역	전국(제주 포함)
표본크기	3,000명 (응답률 70.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79\%$ Point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표본추출 방법	성별, 연령, 지역 인구비례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기간	2024. 02. 02 ~ 2024. 02. 15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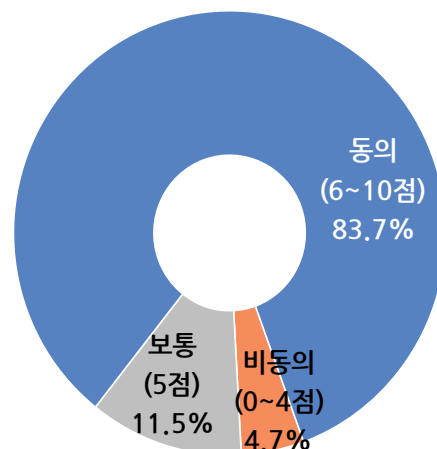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인식

■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83.7%가 동의

-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95.0%), 경남(89.5%), 전남(88.7%), 울산(87.3%), 부산(86.7%), 인천(85.1%) 순이며, 낮은 지역은 대전(72.3%), 충북(74.2%) 순임
-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 대비 중장년층에서 비교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바다 인근 거주자(현재 거주 88.6%, 과거 거주 88.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 해양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단위 : %, 100점 평균: 75.8점, N=3,000)



■ 우리나라 해양강국 정책에 대해 39.3%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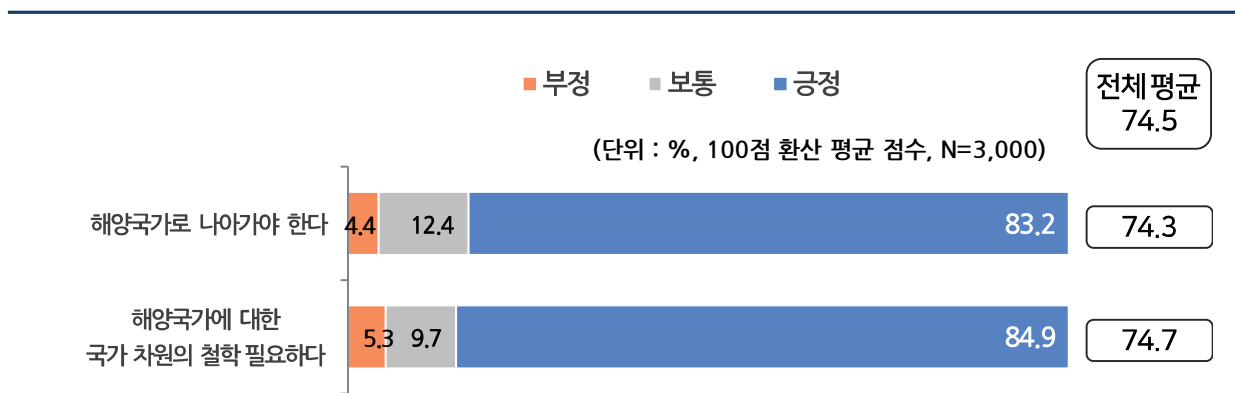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해양강국 정책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알고 있음' 응답은 39.3%, '보통' 26.2%, '모름' 34.6%로 나타남
- '알고 있음'은 남성(45.2%), 부산/경남/울산(44.6%)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모름'이라는 응답은 여성(38.7%), 연령이 낮을수록, 바다 인근 거주 미경험자(3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60%), 부산(49.2%), 인천(46.9%), 울산(46.0%)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28.9%), 제주(30.8%), 충북(31.2) 등은 낮게 나타남

향후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차원 철학’ 필요

■ 향후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9%

- 해양국가 비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양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에 긍정 응답이 83.2%, ‘해양국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에 긍정 응답이 84.9%로 나타남
- ‘국가 차원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울산(90.5%), 제주(89.7%), 부산(88.2%) 순으로 응답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 나아가야 한다’의 경우 울산(88.9%), 전남(88.7%), 경남(8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 해양국가 비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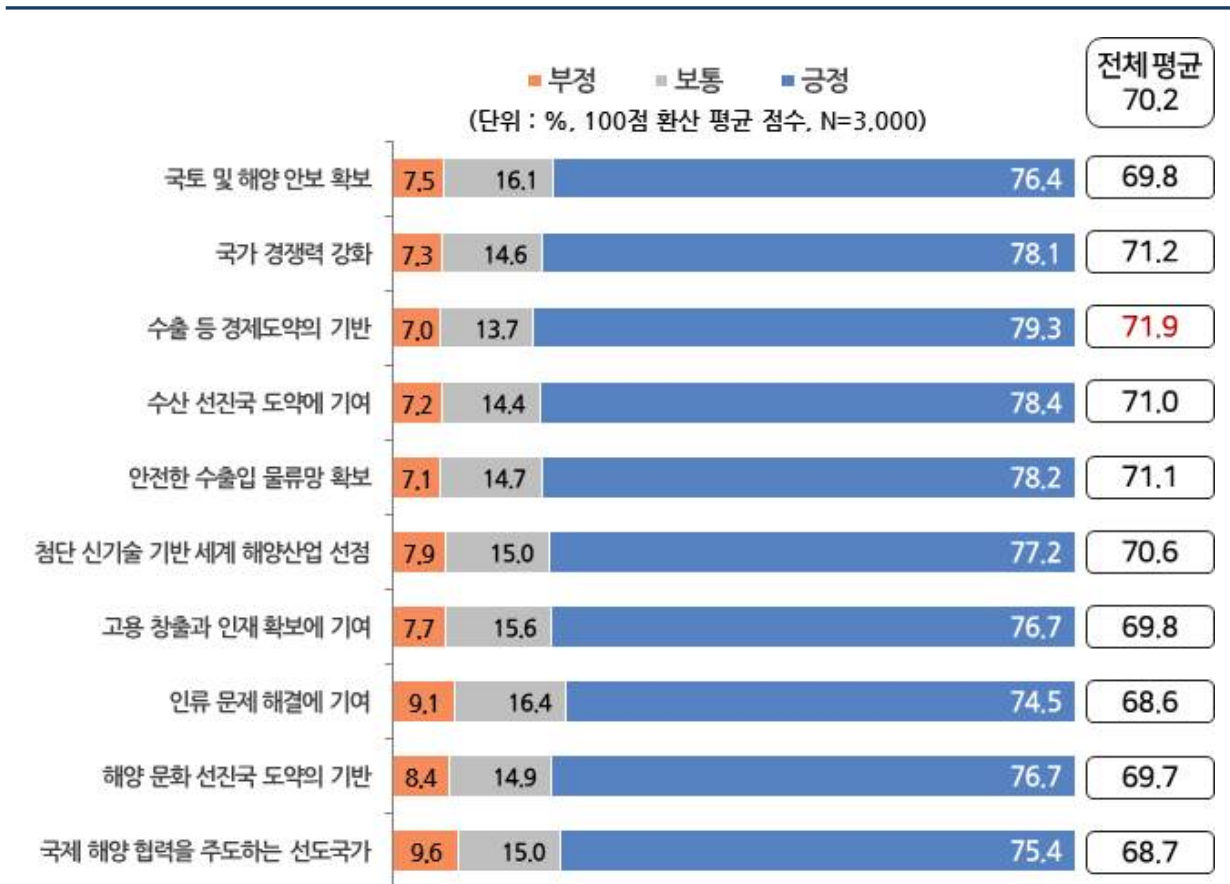


해양강국 실현 시 ‘수출 등 경제도약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기대

■ 해양강국 실현 시 기대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출 등 경제도약의 기반이 된다’ 응답이 71.9점으로 1위

- 그 다음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71.2점), ‘안전한 수출입 물류망을 확보한다’(71.1점), ‘수산업 선진국 도약에 기여한다’(71.0점) 순으로 나타남
- 상위 2개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 등 경제도약 기반이 된다’는 응답의 경우 울산(85.7%), 경남(84.2%), 전남(84.0%), 부산(82.1%)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응답은 울산(85.7%), 대구(83.5%), 경기(80.6%), 전남(80.2%), 부산(8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해양강국 기대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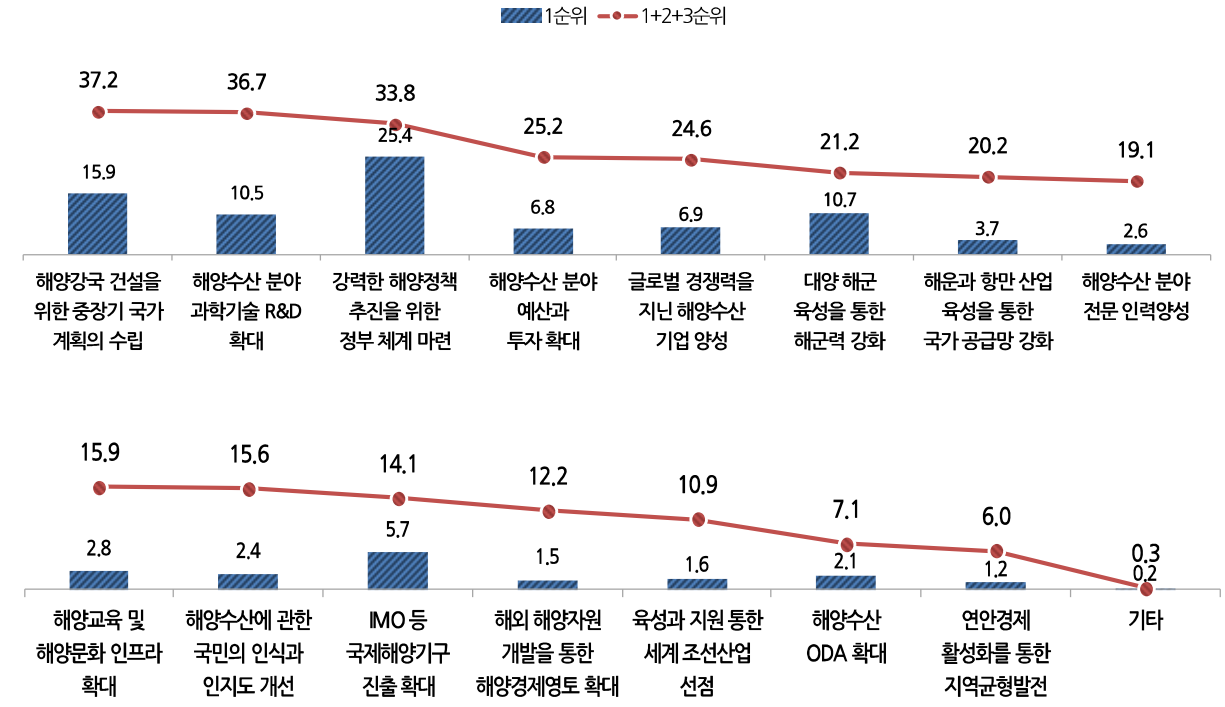
해양강국을 위해 ‘중장기 국가 계획의 수립’ 가장 중요

■ 해양강국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의 수립’ 응답이 1위

-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살펴본 결과, 1+2+3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의 수립’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뒤를 이어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36.7%), ‘강력한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체계 마련’(33.8%), ‘해양수산 분야 예산과 투자 확대’(25.2%),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해양수산 기업 양성’(24.6%), ‘대양 해군 육성을 통한 해군력 강화’(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응답은 남성(40.1%), 전라권(41.4%)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바다 인근 거주자(4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해양강국을 위해 필요한 분야

(단위: %, N=3,000명)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국민 대부분, ‘해양수산이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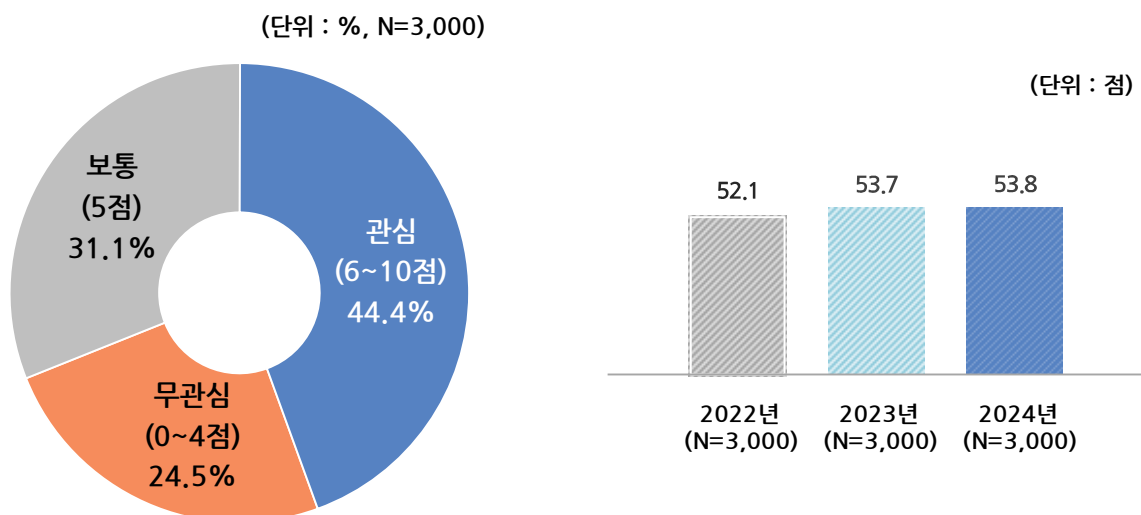
■ 해양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설문한 결과, 해양수산은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 ‘국토와 바다를 지킴’이라는 항목이 높은 평점을 기록

-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다’ 항목은 ‘긍정(6~10점)’ 87.3%, ‘보통(5점)’ 9.7%, ‘부정(0~4점)’ 3.0%로 응답 결과가 나타나 해양수산 부문이 지닌 생태적, 인문학적 가치의 중요성에 국민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평균 77.8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70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함

■ 국민의 75.5%가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

- 평소 해양수산 분야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관심 있음’이 44.4%, ‘보통’ 31.1%, ‘관심 없음’ 24.5%로 대체로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해양수산 분야 전반적 평가와 관심도



해양수산을 연상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다/바닷가/해변’

■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다/바닷가/해변’, 두 번째는 ‘선박/배’, 세 번째는 ‘물고기/생선’

- ‘해양수산’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주관식 문항으로 수집한 결과, ‘바다/바닷가/해변’ 23.9%, ‘선박/배’ 19.1%, ‘물고기/생선’ 16.9% 등의 순으로 언급됨
- 이 외에, 수산물/먹거리(11.9%), 수산업(9.1%), 항구/부두(8.2%), 수출(8.2%), 컨테이너/컨테이너선(7.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언급됨

〈그림 6〉 해양수산 연상되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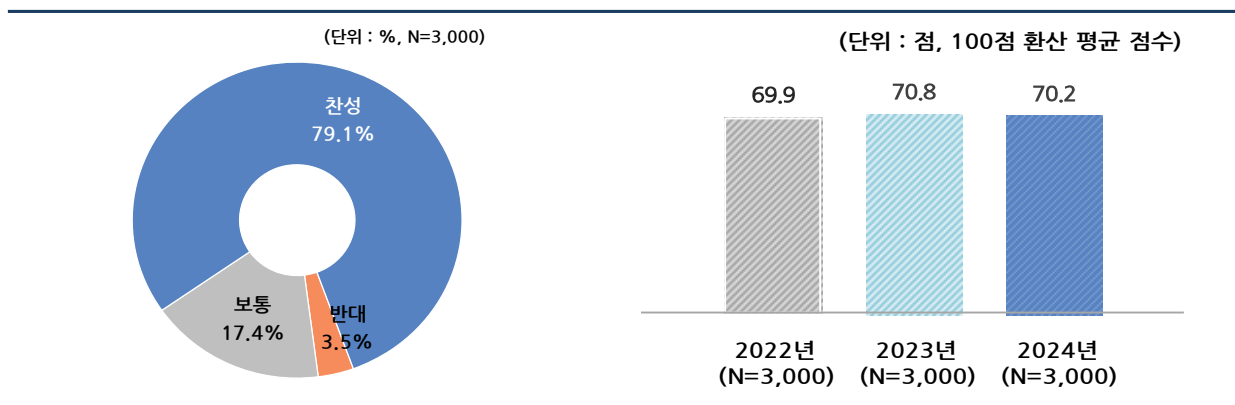


해양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추가 예산 의지는 10명 중 8명이 찬성,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는 79.4%로 높게 평가

■ 해양의 공익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지지

- 환경 및 안전보호, 영해기점 관리, 식량안보 등 해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9.1%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
-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81.5%), 부산/경남/울산(84.4%), 대졸이상(82.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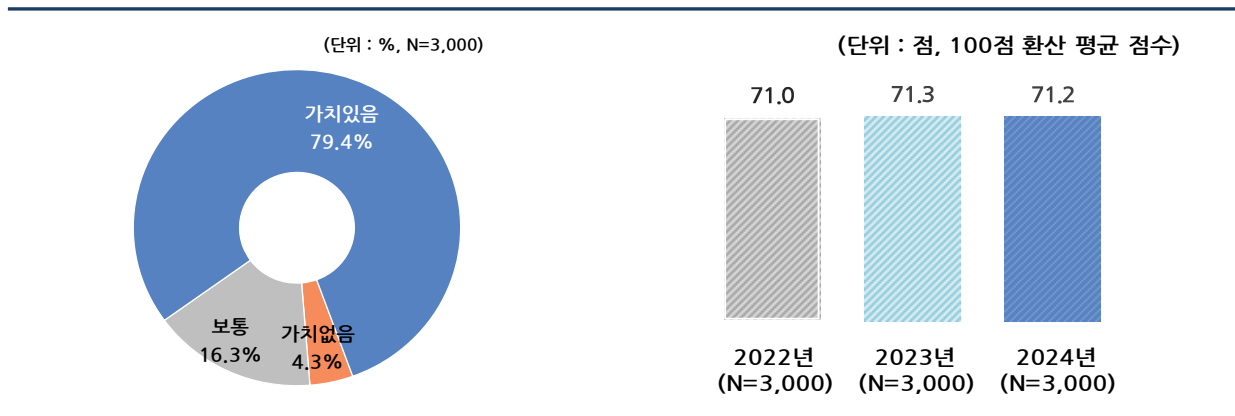
〈그림 7〉 해양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 의지



■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79.4%가 ‘가치 있음’으로 평가

- 수산물 생산 이외에 바다환경과 연안지역 사회 유지, 전통 보존, 국민 휴식장소 제공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응답은 ‘가치 있음’ 79.4%, ‘보통’ 16.3%, ‘가치 없음’ 4.3%로 나타남
- ‘가치 있음’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84.1%), 대졸 이상(82.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치 없음’이라는 응답은 20대(7.0%), 서울(6.0%), 바다 인근 거주 미경험자(5.0%) 등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8〉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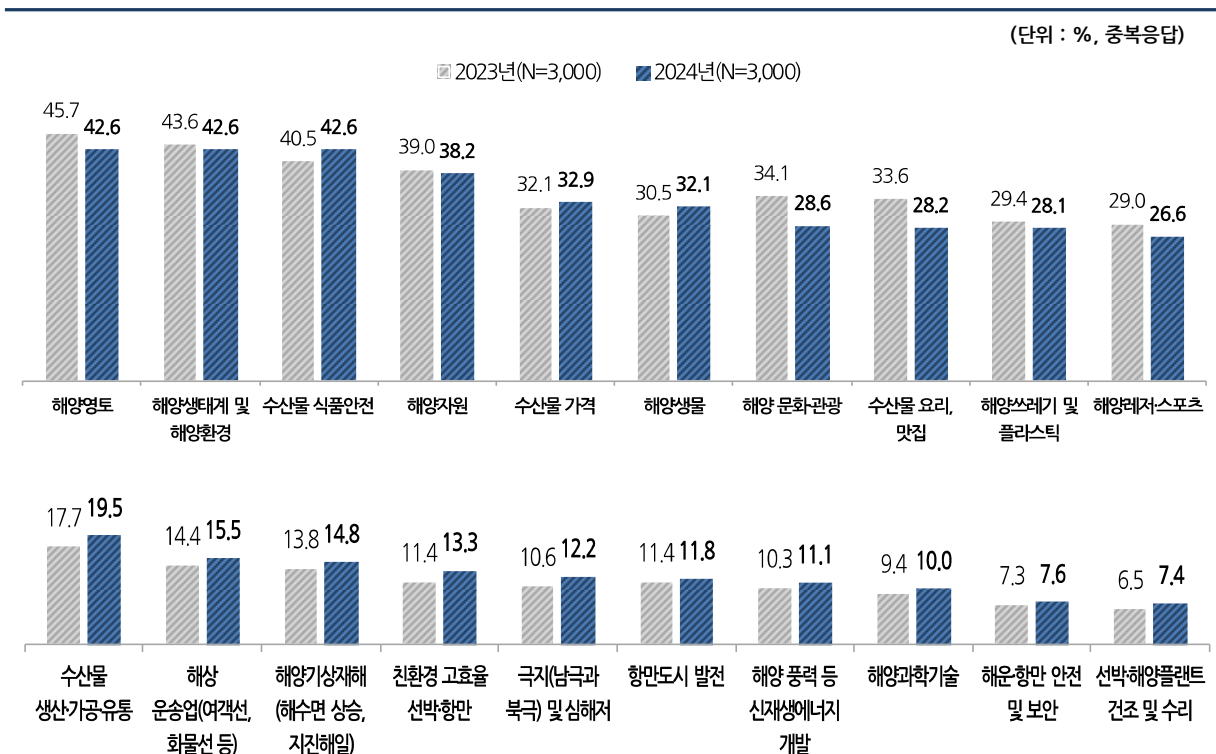


평소 해양수산 주 관심 분야는 ‘해양영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수산물 식품안전’

■ 해양수산 분야 중 관심 항목을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해양영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수산물 식품안전’이라는 응답이 각각 42.6%

- 그 다음으로 ‘해양자원’(38.2%), ‘수산물 가격’(32.9%), ‘해양생물’(32.1%), ‘해양 문화·관광’(28.6%), ‘수산물 요리, 맛집’(28.2%),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2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수산물 식품안전’, ‘수산물 가격’, ‘해상기상재해(해수면 상승, 지진해일)’, ‘친환경 고효율 선박·항만’ 등에 대한 관심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함

〈그림 9〉 해양수산 분야 중 관심 항목



다른 해양국가와 비교 시 ‘선박(조선, 해양플랜트)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은 우수,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 수준’은 열세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해 다른 해양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우수 분야는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이 1위

- 2021년부터 우수 분야로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수준’(5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항만 인프라 및 물동량 확보 수준’ (43.2%),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운송 수단 이용 수준’(4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운송 수단 이용 수준’, ‘해운·항만의 스마트화, 지능화 수준’ 및 ‘국민 여가활동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 수준’ 등 비교적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가 높고, 60대 이상은 ‘선박(조선·해양플랜트)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 ‘항만 인프라 및 물동량 확보 수준’ 및 ‘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 수준’ 등 비교적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향후 10년 내 성장이 기대되는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자원’

■ 해양수산 분야 중 향후 10년 내 크게 성장하거나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해양자원’,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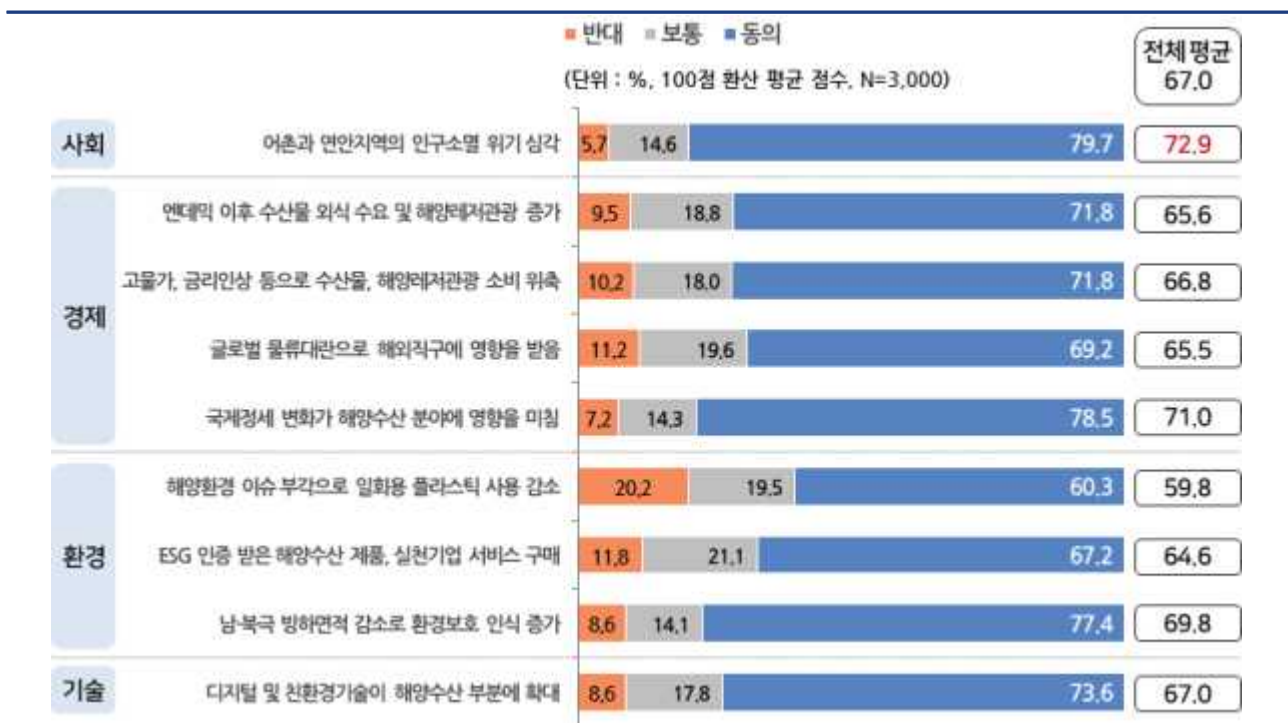
- 해양수산 분야 중 향후 10년 내 성장이 기대되는 항목으로 ‘해양자원’(44.2%),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37.0%),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29.7%), ‘수산물 식품안전’(28.8%), ‘친환경 고효율 선박·항만’(27.2%), ‘해양영토’(27.0%), ‘해양 문화·관광’(25.3%), ‘해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25.3%), ‘해양레저·스포츠’(23.2%), ‘해양과학기술’(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수산물 식품안전’의 경우 2023년 26.2%에서 2024년 28.8%로 2.6%p 상승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음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촌과 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심각’ 지속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에 대한 의견으로 ‘어촌과 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해졌다’라는 평가가 72.9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뒤를 이어 ‘국제정세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71.0점), ‘남·북극 빙하 면적 감소가 심해지면서 환경보호 인식이 증가하였다’(69.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평가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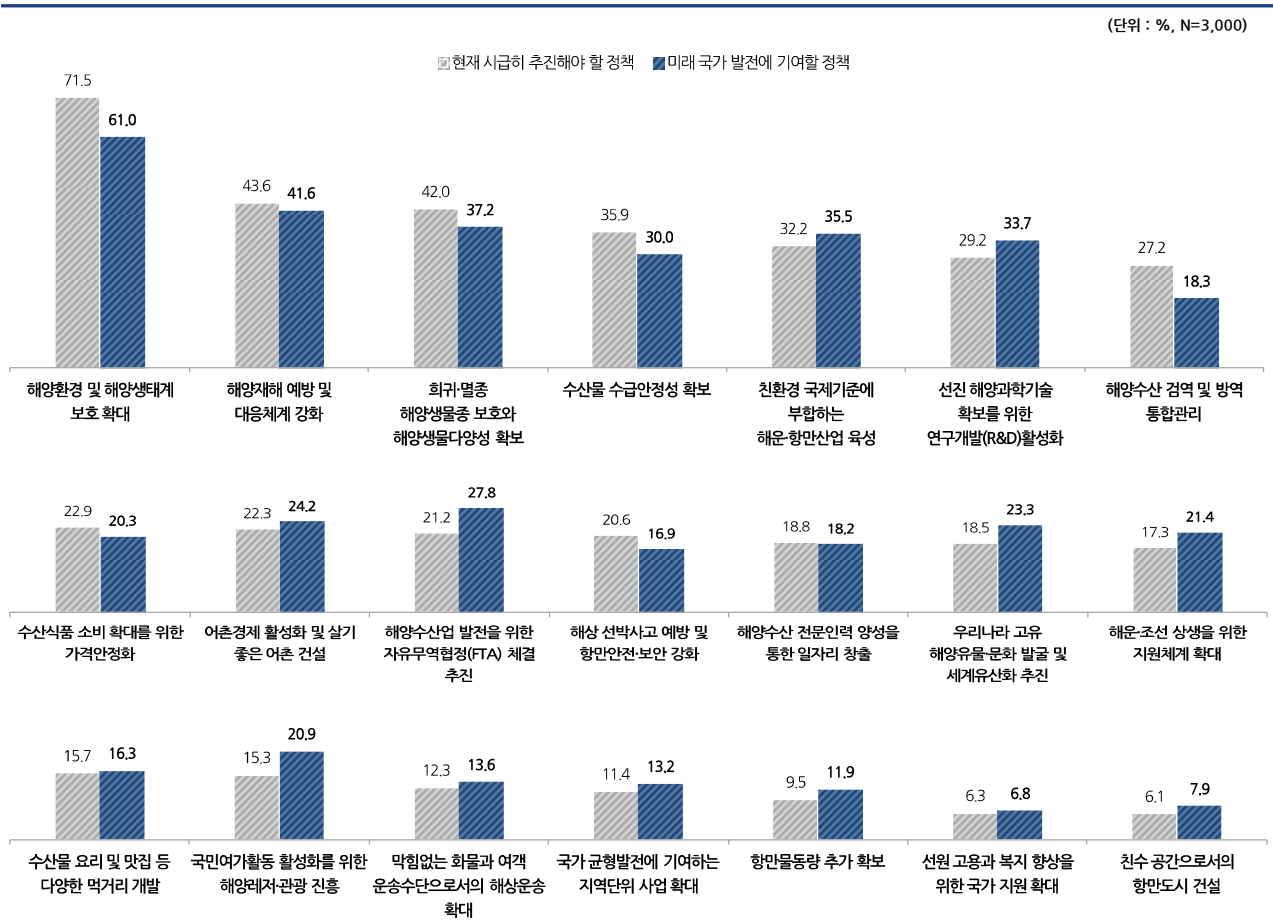
■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해양수산 분야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

-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71.5%), ‘해양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43.6%)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확보’(4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해양수산 분야 정책 또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

-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 역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61.0%), ‘해양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41.6%),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확보’(37.2%)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및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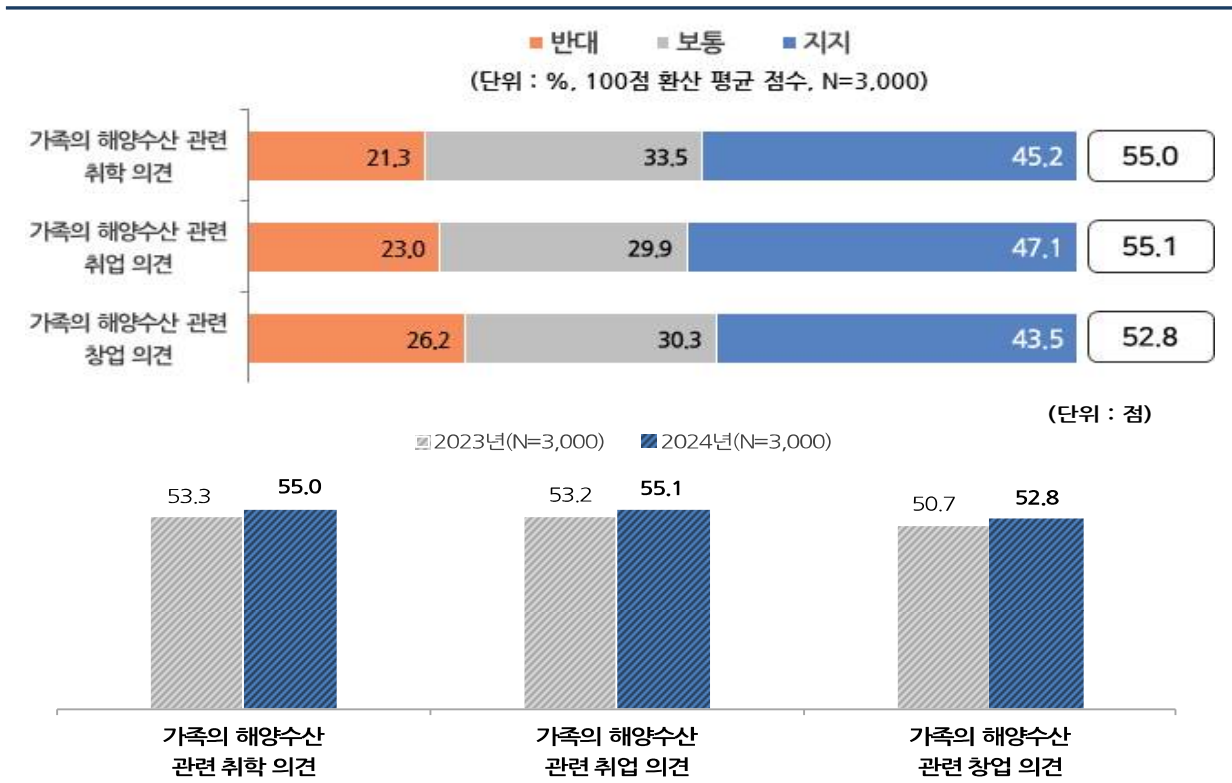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지지는 전년대비 상승, ‘반대’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

■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2%, ‘취업’의 지지는 47.1%

- 반면,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의 반대는 21.3%, 취업의 반대는 23.0%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취학 및 취업에 대한 인식은 2023년 각각 4.9%p, 5.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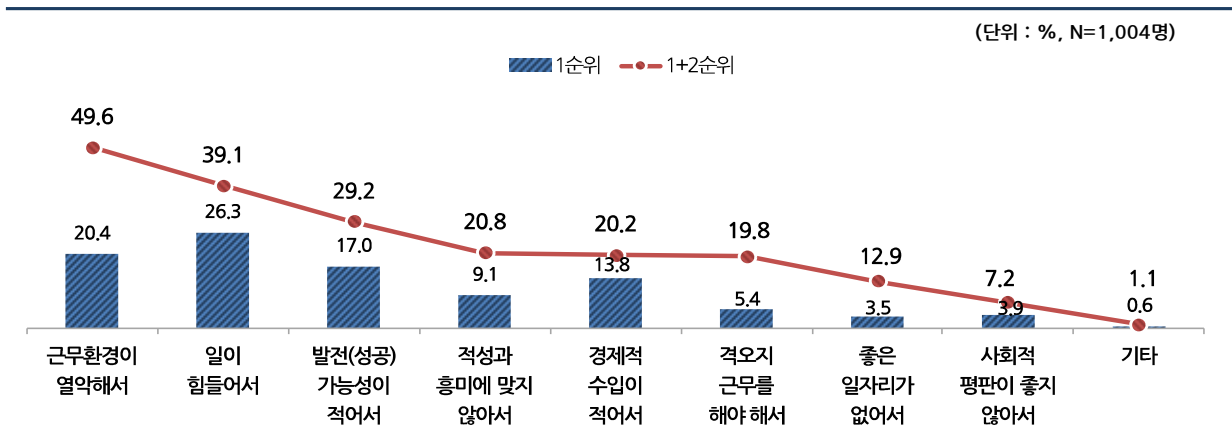
〈그림 12〉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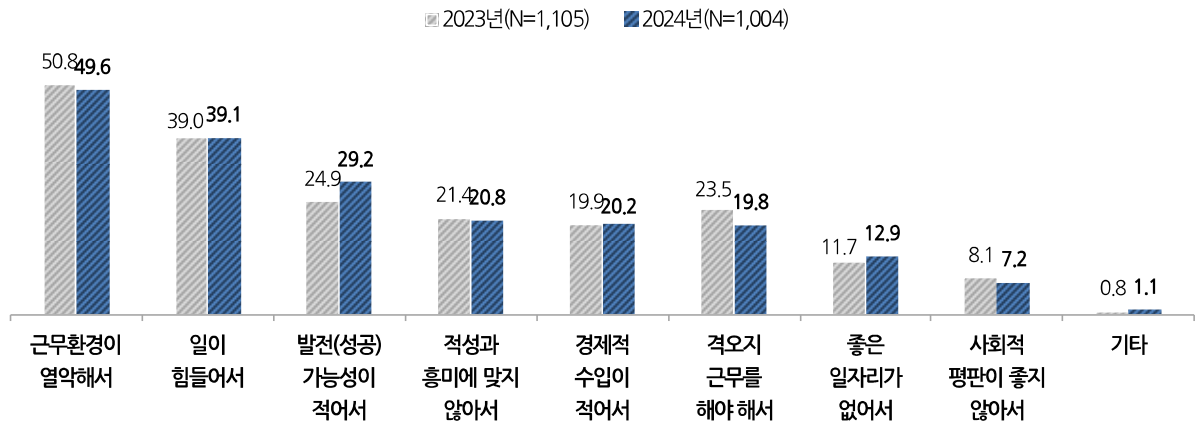
■ 가족의 해양수산 취학/취업의 반대는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반대 응답자(n=1,004명)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이 49.6%(1+2순위 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일이 힘들어서'(39.1%), '발전(성공) 가능성이 적어서'(29.2%),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20.8%) '경제적 수입이 적어서'(2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해양수산 관련 취업 반대 이유



(단위 : %,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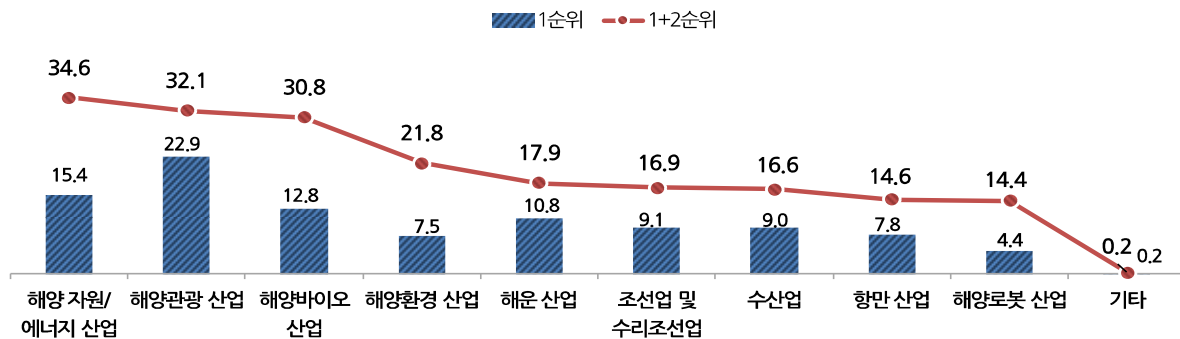


■ 여유 자금 있다면 ‘해양 자원/에너지 산업’에 투자 선호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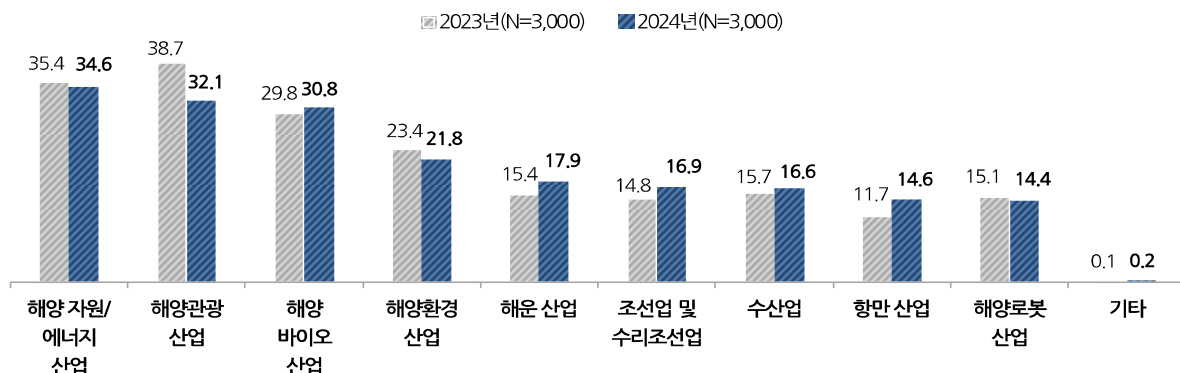
- 해양수산 투자 분야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해양 자원/에너지 산업’이 34.6%(1+2순위 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다음으로, ‘해양관광 산업’(32.1%), ‘해양 바이오산업’(30.8%), ‘해양환경 산업’(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해양수산 투자 분야

(단위 : %, N=3,000명)



(단위 : %, 1+2순위)



해양 분야

국민의 대부분, 해양은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고 평가

■ 해양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해양은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77.9점으로 3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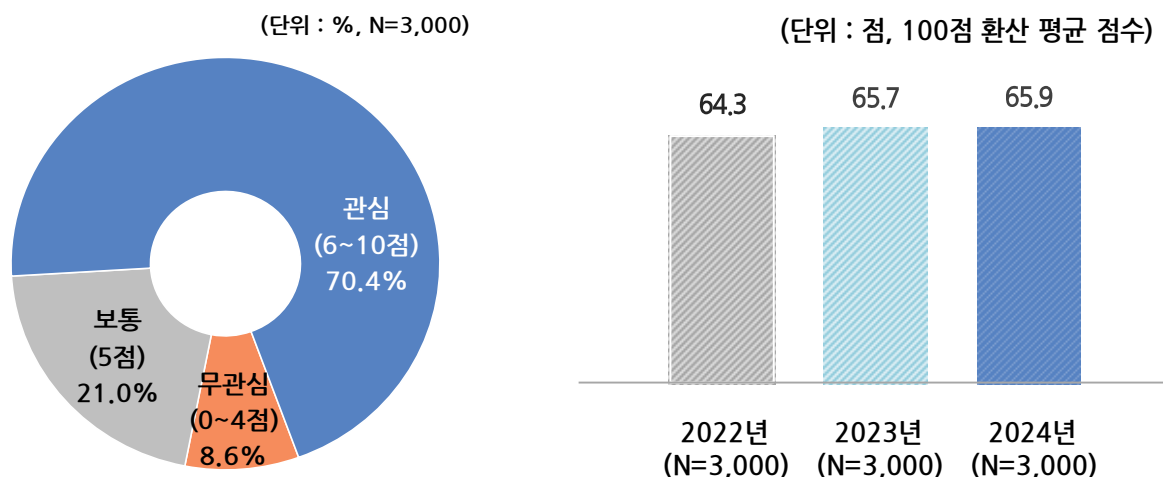
- 그 뒤를 이어 '5년 전에 비해 중요성 증가' 65.9점, '해양 중요성 인식' 59.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소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70.4% 기록

■ 해양환경 관심도 평균은 2020년 64.7점, 2021년 65.9점, 2022년 64.3점, 2023년 65.7점, 2024년 65.9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평소 해양환경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관심 있음'(관심도 6~10점) 응답은 70.4%, '보통'(관심도 5점) 21.0%, '관심 없음'(관심도 0~4점) 8.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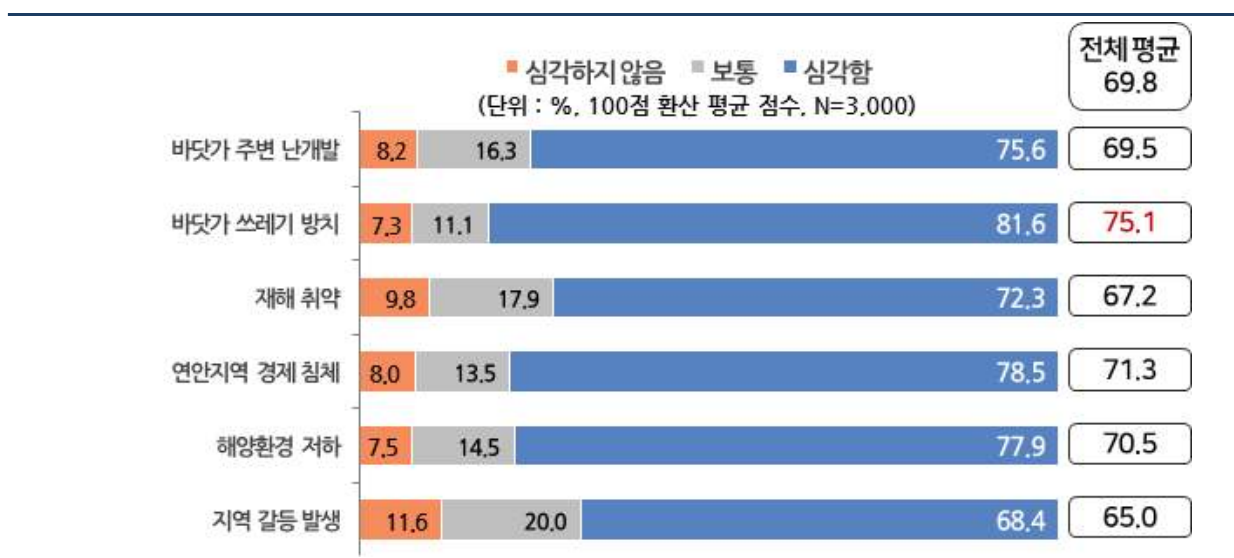
〈그림 15〉 평소 해양환경 관심도



■ 해안가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폐어망, 생활 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라는 응답이 1위

- 해안가 문제점에 대해 항목별로 심각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폐어망, 생활 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의 심각성이 75.1점으로 3년 연속 높은 수준임(22년 78.7점, 23년 80.2점, 24년 75.1점)
- 그 다음으로 ‘어촌지역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연안지역 경제 침체’ 항목의 심각성이 71.3점, ‘해양환경 저하’ 7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해안가 문제점 항목별 심각도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해양오염 단속·처벌 규정 강화’ 응답이 45.2%로 1위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살펴본 결과, ‘해양오염 단속·처벌 규정 강화’라는 응답이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45.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해양오염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제고’(44.9%),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24.9%), ‘과학 및 환경보호 기술분야 투자 확대’(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2023년에는 ‘해양오염 해결에 대한 노력 및 인식전환/제고’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해양오염 단속·처벌 규정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여행목적의 바다 방문 횟수는 연간 2~3회, 2박 3일 여행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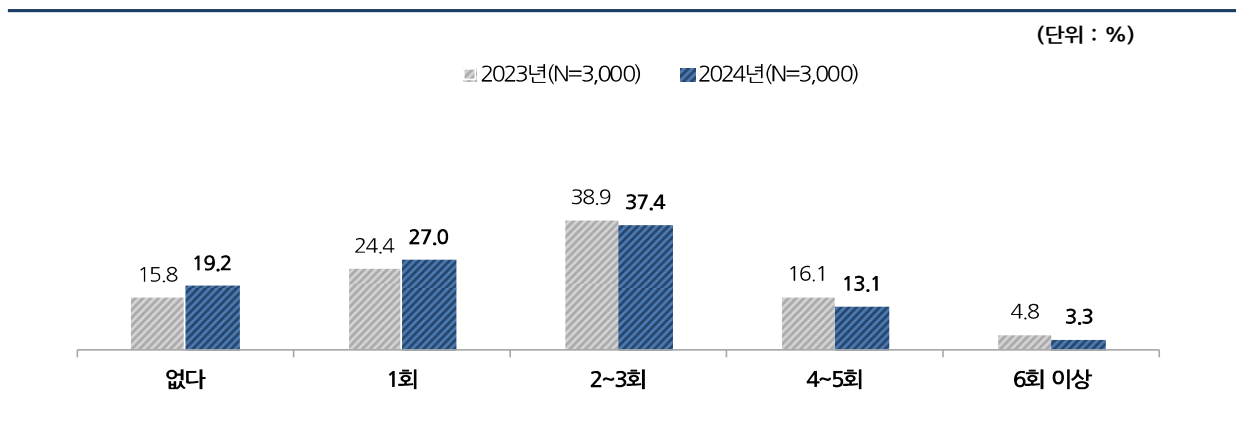
■ 여행목적으로 바다를 방문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2~3회’라는 응답이 총 37.4%, ‘1회’라는 응답은 27.0%

- ‘2~3회’ 응답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2.8%’, 연령별로는 30대가 40.3%로 높게 나타났으며, ‘1회’ 응답의 경우 20대가 2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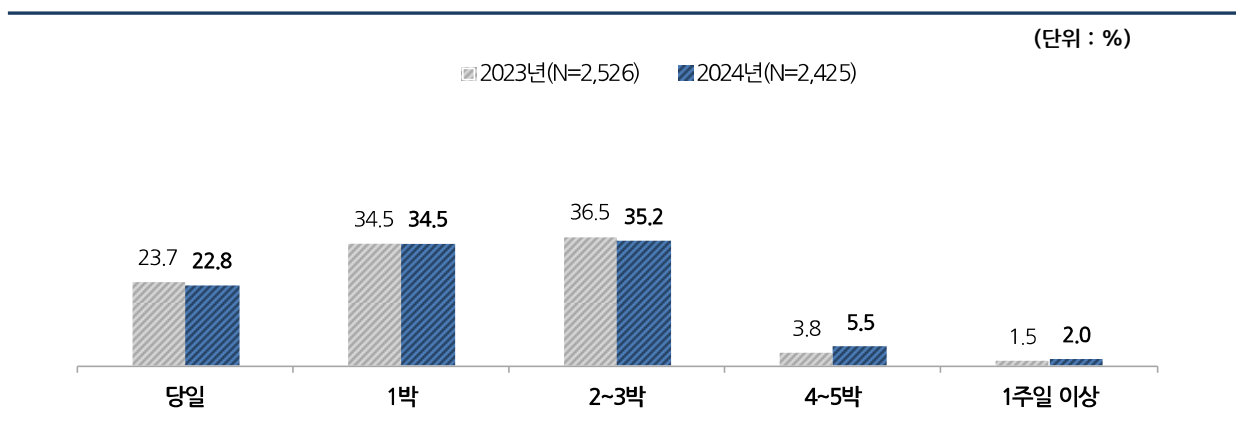
■ 바다 방문 시 머무는 기간은 ‘2박 3일’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박’은 34.5%로 2위

- ‘2~3박’이라는 응답은 40대(40.6%), 서울(44.4%) 및 인천/경기(40.6%), 월 소득 701만 원 이상(701~1,000만 원(41.0%), 1,001만 원 이상(43.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17〉 여행목적 바다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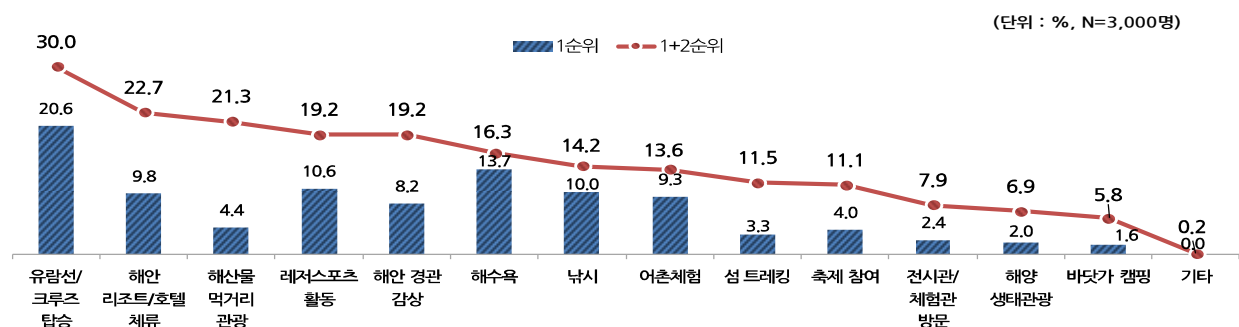
〈그림 18〉 바다에 머무는 기간



■ 바다 여행 시 선호하는 활동은 ‘유람선/크루즈 탑승’, “해안 리조트/호텔 체류” 선호

- 해안가에서 희망하는 여가 활동을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유람선/크루즈 탑승’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해안 리조트/호텔 체류’(22.7%), ‘해산물 먹거리 관광’(21.3%), ‘레저스포츠 활동’(19.2%), ‘해안 경관 감상’(19.2%), ‘해수욕’(16.3%), ‘낚시’(14.2%), ‘어촌 체험’(13.6%), ‘섬 트레킹’(11.5%), ‘축제 참여’(11.1%), ‘전시관/체험관 방문’(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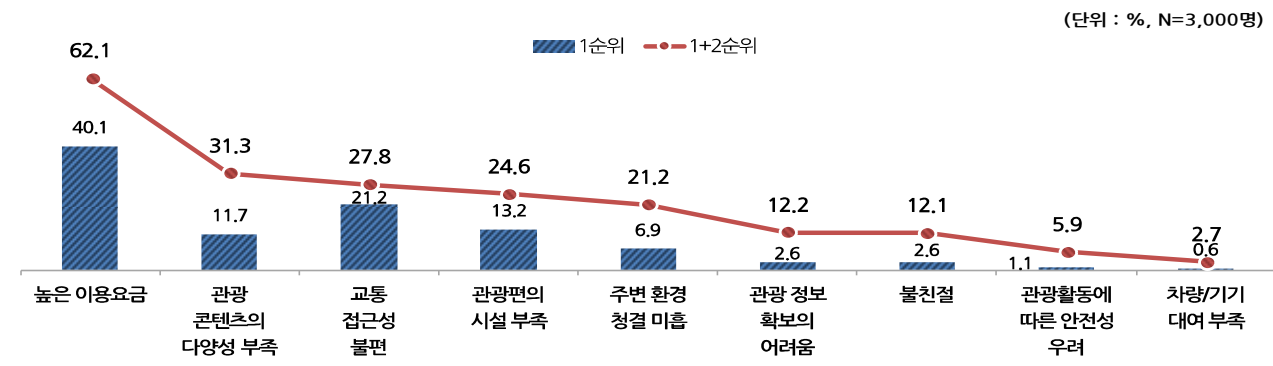
〈그림 19〉 해안가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



■ 바닷가 여행 시 불편 사항으로 ‘높은 이용요금’이 62.1%

- 해안 관광 시 불편 사항으로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높은 이용요금’(62.1%),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31.3%), ‘교통 접근성 불편’(27.8%), ‘관광 편의시설 부족’(24.6%), ‘주변 환경 청결 미흡’(21.2%), ‘관광 정보 확보의 어려움’(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중복응답 1+2순위 기준 ‘높은 이용요금’은 7년 연속으로 가장 심각한 불만 사항으로 조사됨(18년(63.9%), 19년(60.6%), 20년(59.2%), 21년(61.3%), 22년(62.4%), 23년(64.6%), 24년(62.1%))

〈그림 20〉 해안 관광 시 불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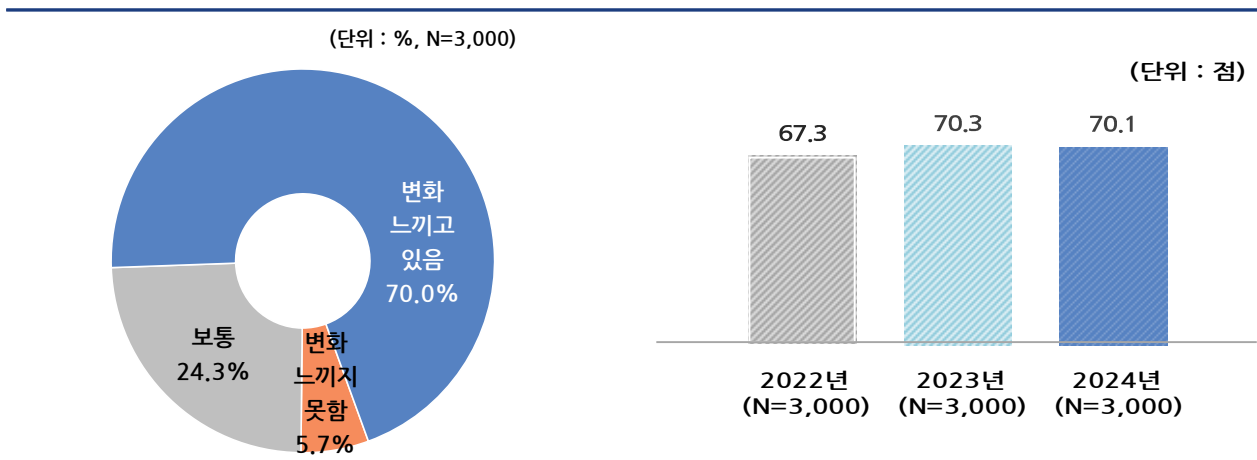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7명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수산자원 변화를 체감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변화 평가에 ‘변화를 느끼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70.0%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변화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변화를 느끼고 있음(매우 느끼고 있음+대체로 느끼고 있음)’ 70.0%, ‘보통’ 24.3%, ‘변화를 느끼지 못함(전혀 느끼지 못함+별로 느끼지 못함)’ 5.7%로 나타남

〈그림 21〉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수산자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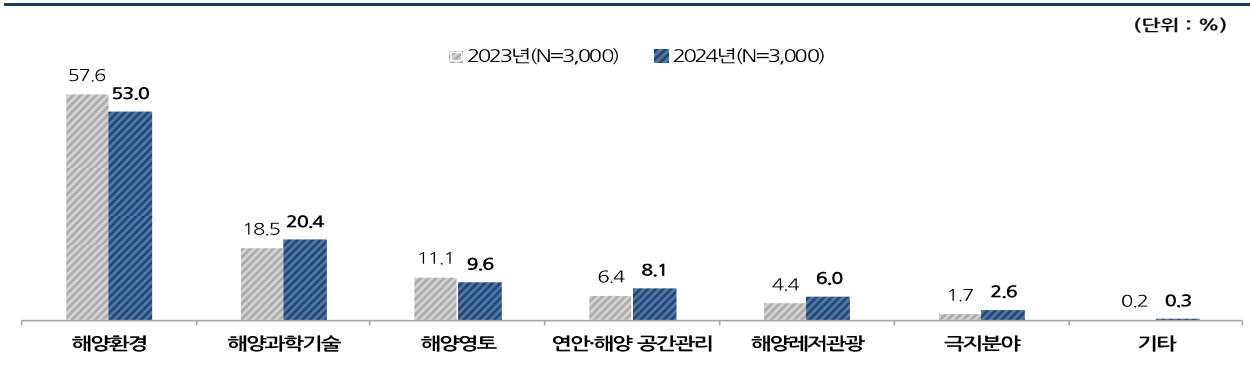


향후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해양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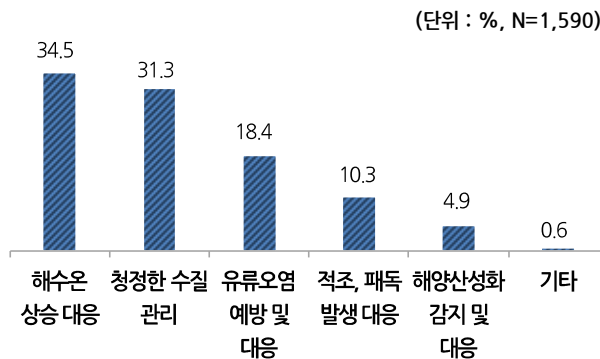
■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국민의 53.0%가 ‘해양환경’으로 선택

-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20.4%), ‘해양영토’(9.6%), ‘연안·해양 공간관리’(8.1%), ‘해양 레저관광’(6.0%), ‘극지분야’(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양환경 분야는 해수온 상승 대응,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기후변화 및 해양 생태계, 해양영토 분야는 독도, 연안·해양 공간관리 분야는 보존/이용 조정체계, 해양레저 관광 분야는 해양 생태 관광, 극지 분야는 기후변화와 해빙(解氷) 연구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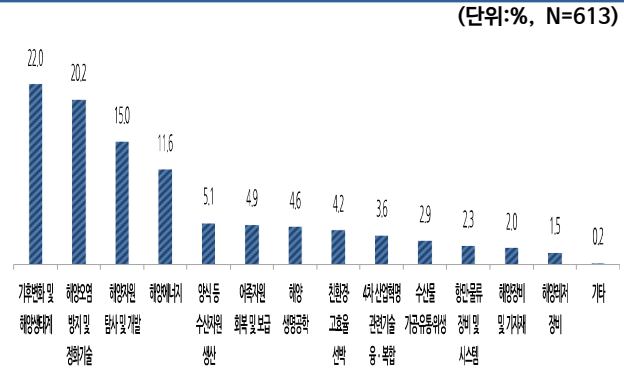
〈그림 22〉 해양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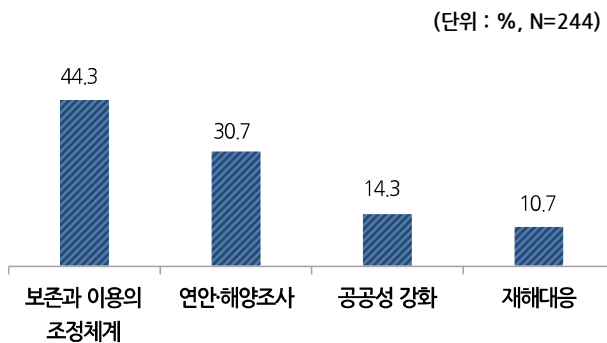
〈그림 22-1〉 해양환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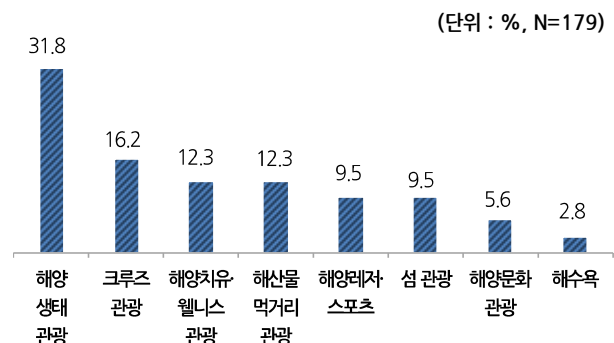
〈그림 22-2〉 해양과학기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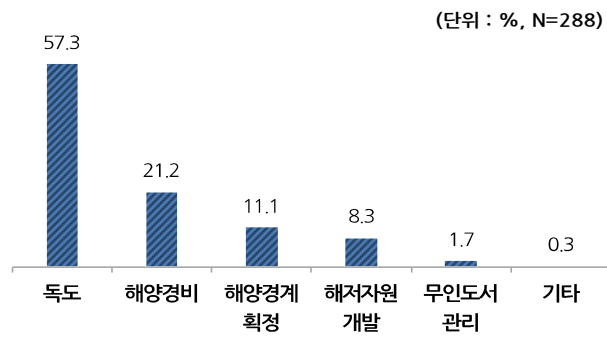
〈그림 22-3〉 연안/해양공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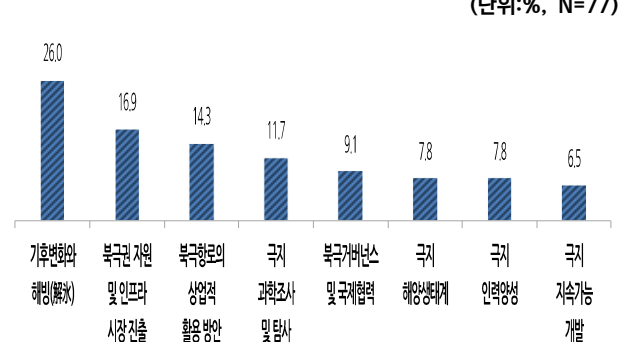
〈그림 22-4〉 해양레저 관광 분야



〈그림 22-5〉 해양영토 분야



〈그림 22-6〉 극지 분야



수산 분야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 ‘오징어’, ‘김’ 순

■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을 살펴본 결과, 국민 생선 ‘고등어’ 14.0%, ‘오징어’ 12.9%, ‘김’ 10.4% 순

-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을 살펴본 결과, ‘고등어’라는 응답이 419번(1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오징어’라는 응답이 385번(12.9%)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김’(10.4%), ‘광어’(7.8%), ‘새우’(6.5%), ‘갈치’(6.5%), ‘연어’(3.7%) 등의 순임

〈그림 23〉 선호하는 수산물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는 ‘광어’, ‘연어’, ‘우럭’ 순

■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를 살펴본 결과, ‘광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조사

-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를 살펴본 결과, ‘광어’라는 응답이 1,213번(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어’라는 응답이 339번(11.3%) 나타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참돔’(5.7%), ‘방어’(5.4%), ‘도미/돔’(4.1%), ‘오징어’(3.5%), ‘참치’(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과 가장 좋아하는 생선회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선호하는 생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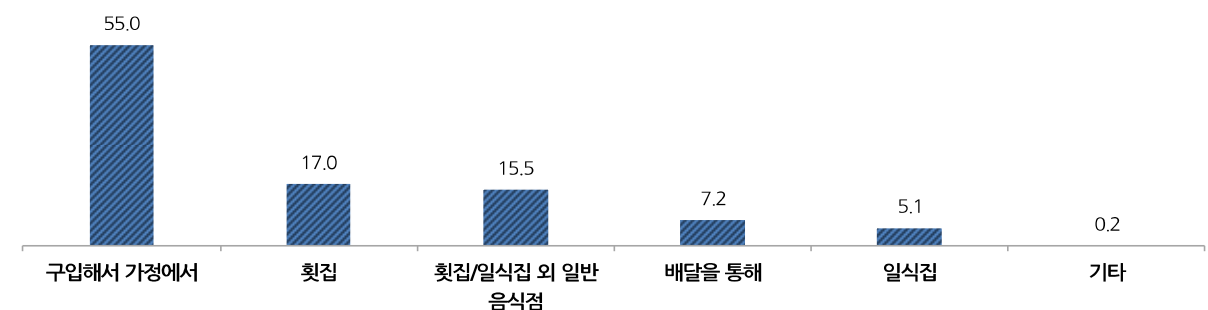
수산물을 먹는 주요 장소는 60% 이상이 ‘가정’

■ 수산물을 먹는 주요 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이라는 응답이 55.0%로 과반수 차지

- 다음으로 ‘횃집’(17.0%), ‘횃집/일식집 외 일반음식점’(15.5%), ‘배달을 통해서’(7.2%) 순으로 나타남
- ‘가정’이라는 응답은 여성(60.6%), 60대 이상(66.2%), 전라권(60.5%), 주부(68.3%) 등에서 특히 높고, ‘횃집’이라는 응답은 남성(19.7%), 30대(20.6%), 대구/경북(22.0%) 및 부산/경남/울산(21.9%), 블루칼라(2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5〉 수산물을 먹는 주요 장소

(단위 : %, N=2,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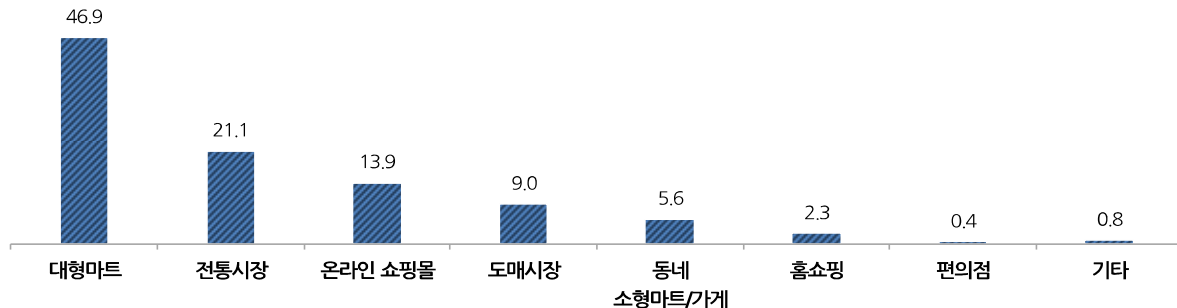
수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부분 ‘대형마트’

■ 수산물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라는 응답이 46.9% 차지, ‘전통시장’은 21.1%, ‘온라인쇼핑몰’은 13.9%

- ‘대형마트’라는 응답은 30대(50.9%), 강원/제주(64.8%), 학생(56.4%) 등에서 특히 높았으며, ‘전통시장’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28.0%), 전라권(28.9%) 및 부산/경남/울산(34.0%), 농/임/어업(26.5%), 현재 바다 인근 거주자(3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쇼핑몰 이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시장 이용률이 높았음

〈그림 26〉 수산물 구입 장소

(단위 : %, N=2,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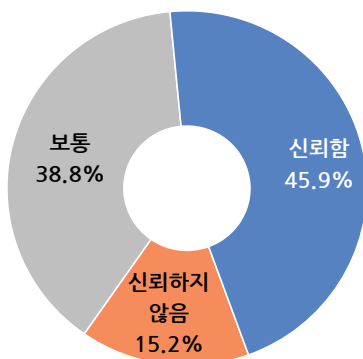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 ‘45.9%’로 절반 수준에 못 미쳐

■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뢰함’ 응답이 45.9%, ‘보통’ 38.8%, ‘신뢰하지 않음’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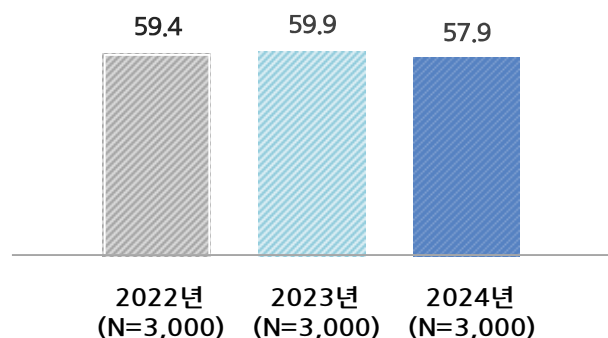
- 지역별로 ‘신뢰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대(21.2%), 중졸 이하(23.7%) 등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신뢰함’ 응답은 50대(48.8%) 및 60대 이상(58.5%), 강원/제주(48.8%), 농/임/어업(55.1%) 및 학생(53.2%), 대재(5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7〉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 정도

(단위 : %, N=3,000)



(단위 :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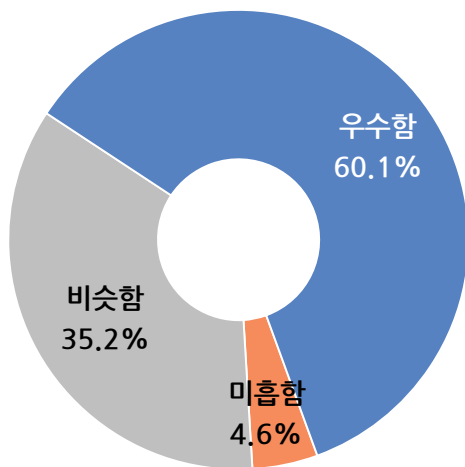
‘국산 수산물’이 ‘수입 수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

■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산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60.1%로 전년 대비 7.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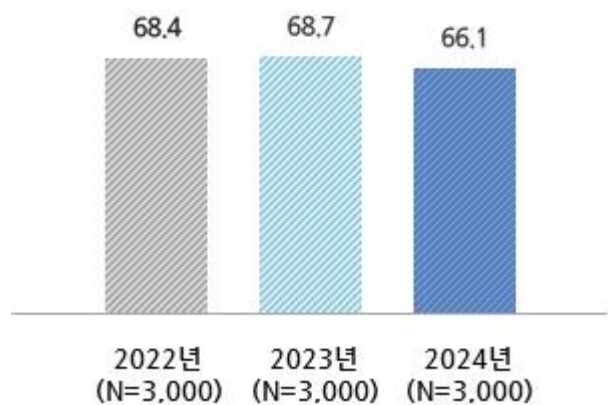
- ‘국산이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4.6%로 전년 대비 0.4%p 증가, ‘보통’이라는 평가는 35.2%로 전년 대비 7.0%p 증가함

〈그림 28〉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품질 비교

(단위 : %, N=3,000)



(단위 :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부정적 인식 감소

■ 외국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024년 ‘37.5%’로 전년 대비 6.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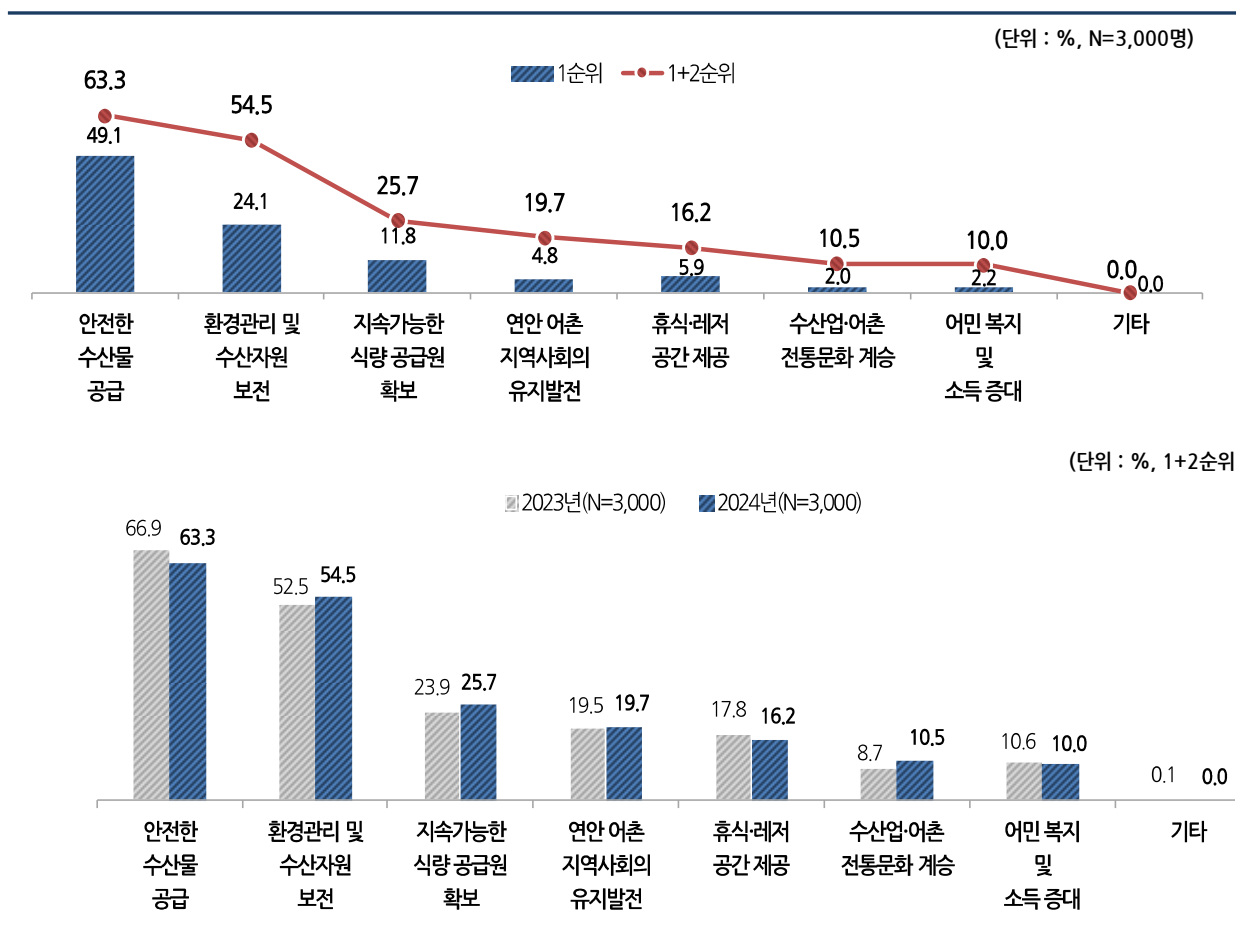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22년 ‘41.3%’에서 2023년 ‘43.5%’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37.5%’로 감소
- 연령대별로 20대(48.1%), 30대(41.3%)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6.1%), 부산/경남/울산(41.3%)순으로 나타남

수산업,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

■ 수산업·어촌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49.1%

- 그 다음으로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보전’(24.1%),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 확보’(11.8%), ‘휴식·레저 공간 제공’(5.9%), ‘연안어촌 지역사회 유지 발전’(4.8%), ‘어민 복지 및 소득 증대’(2.2%), ‘수산업·어촌 전통문화 계승’(2.0%) 순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1+2순위 기준, ‘국민 먹거리로서의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이 63.3%,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보전’ 54.5%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가 동일함
- 한편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치 있음’이 79.4%, ‘보통’ 16.3%, ‘가치 없음’이 4.3%로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치 있다고 평가함

〈그림 29〉 수산업, 어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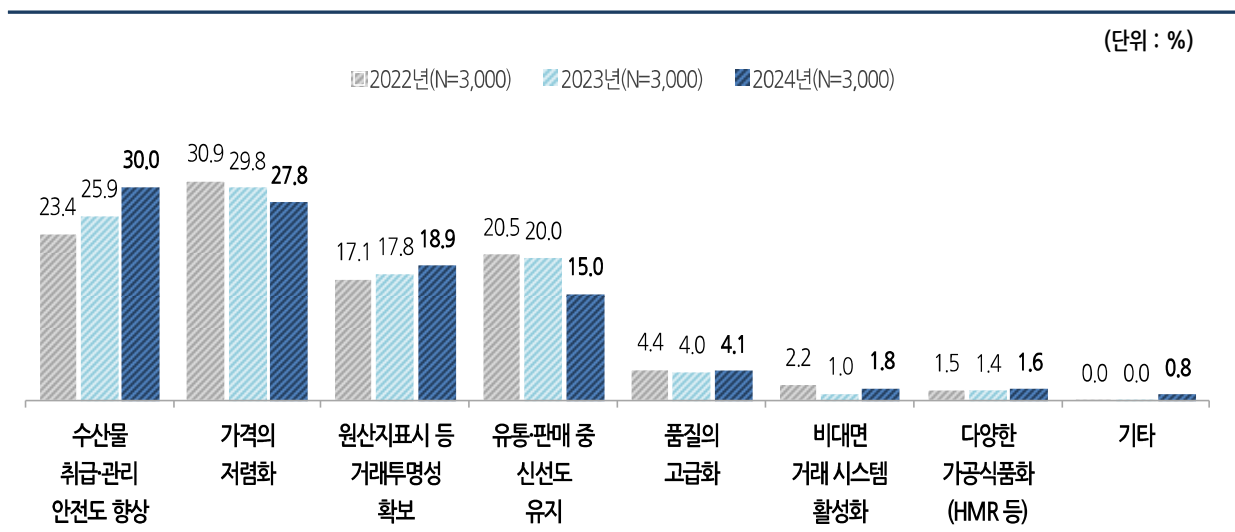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

■ 수산물 관련 시급 개선 과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이 30.0%로 높게 조사

- 다음으로 ‘가격의 저렴화’ 27.8%, ‘원산지표시 등 거래 투명성 확보’ 18.9%, ‘유통·판매 중 신선도 유지’ 15.0%, ‘품질의 고급화’ 4.1% 순으로 나타남
-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이라는 응답은 여성(34.1%), 화이트칼라(34.0%) 및 주부(34.6%), 대졸 이상(32.6%), 바다 인근 거주 미경험자(31.2%) 등에서 특히 높음
- 수산물 안전도 향상에 대한 개선 과제 수요는 전년 대비 4.1%p 증가한 반면 가격의 저렴화에 대한 수요는 전년 대비 1.0%p 소폭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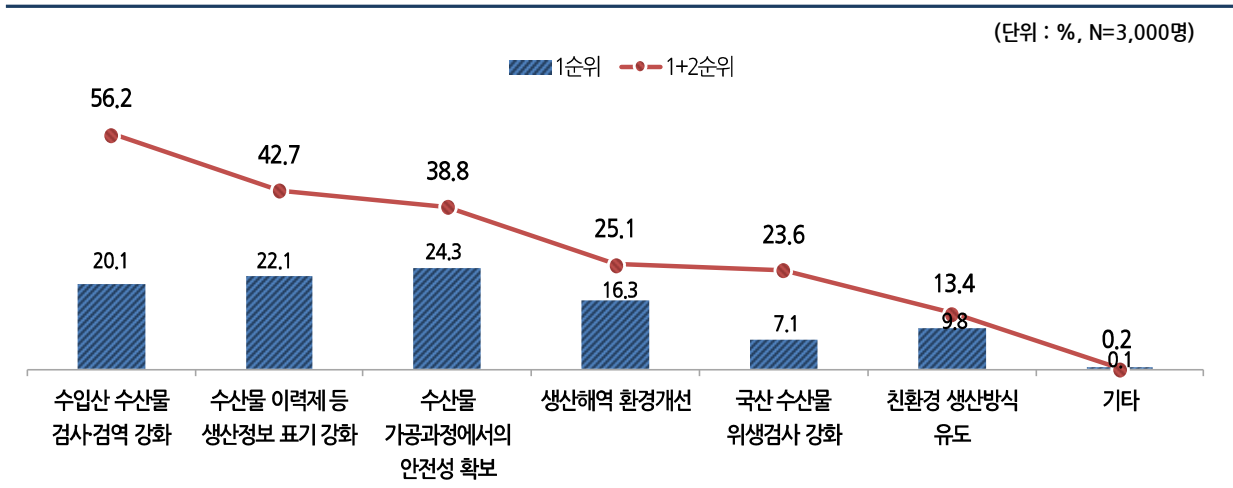
〈그림 30〉 수산물 관련 시급히 개선할 과제



■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수입산 수산물 검사 검역 강화’가 56.2%로 1순위

- 다음으로, ‘수산물이력제 등 생산 정보 표기 강화’(42.7%), ‘수산물 가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38.8%), ‘생산해역 환경 개선’(25.1%), ‘국산 수산물 위생검사 강화’(23.6%), ‘친환경 생산방식 유도’(13.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은 10명 중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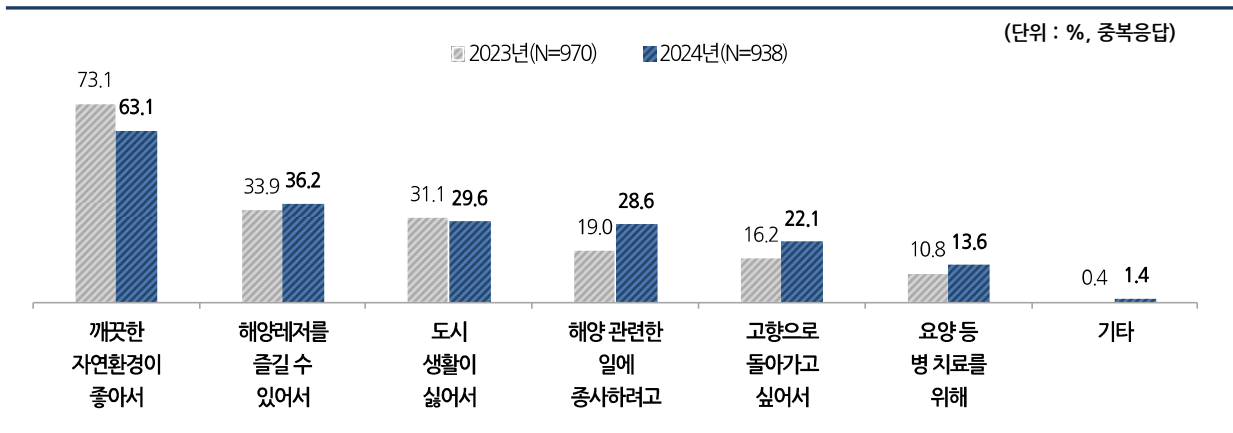
■ 귀어·귀촌 의향을 살펴본 결과, 의향 ‘있음’이 31.3%로 작년 대비 증가

- 2024년 귀어·귀촌 의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6.5%)이 여성(26.2%) 대비 10.3%p 높게 나타났고, 40대(36.5%), 바다 인근 거주자(현재 거주 37.3%, 과거 거주 37.3%) 등에서 특히 높음
- 반면 ‘의향 없음’ 응답은 여성(44.2%), 20대(45.0%) 및 30대(40.3%), 대구/경북(41.4%) 및 강원/제주(42.6%), 학생(47.4%), 바다 인근 거주 미경험자(4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귀어·귀촌하려는 이유는 ‘깨끗한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63.1%

- ‘깨끗한 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75.2%), 주부(72.9%) 응답자 집단에서 특히 높음
- 다음으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어서’(36.2%), ‘도시생활이 싫어서’(29.6%), ‘어업, 관광업 등 해양 관련한 일에 종사하려고’(28.6%),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22.1%), ‘요양 등 병 치료를 위해’(13.6%)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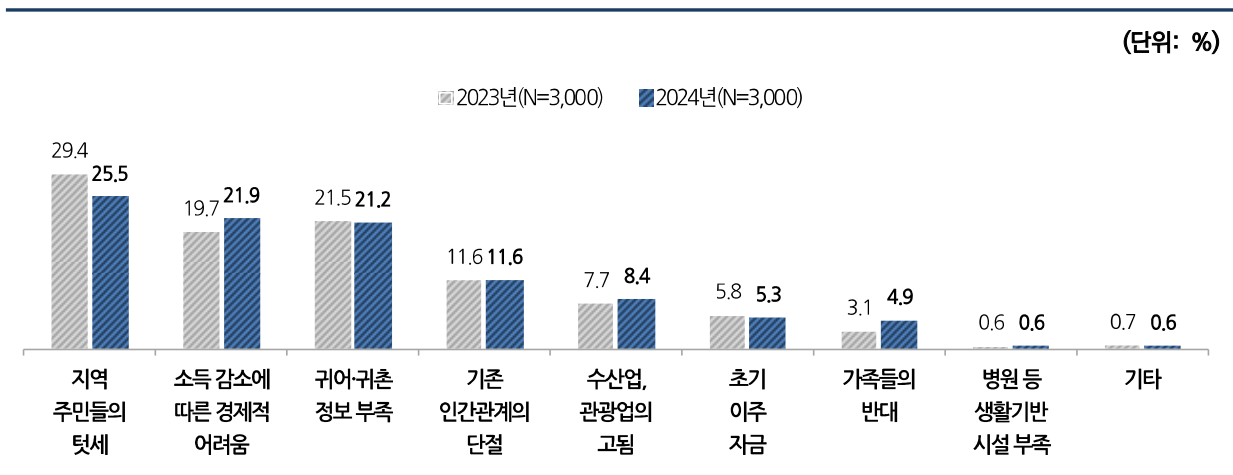
〈그림 32〉 귀어·귀촌을 하려는 이유



■ 귀어·귀촌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텃세’가 25.5%

- 다음으로,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21.9%), ‘귀어·귀촌 정보 부족’(21.2%), ‘기존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외로움’(11.6%) 등의 순임
- ‘지역 주민들의 텃세’라는 응답은 전년도에 이어 1순위로 조사됨
- 지역 사회 차원에서 귀어귀촌 의향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기존 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외로움 문제 해결을 도울 필요가 있음

〈그림 33〉 귀어·귀촌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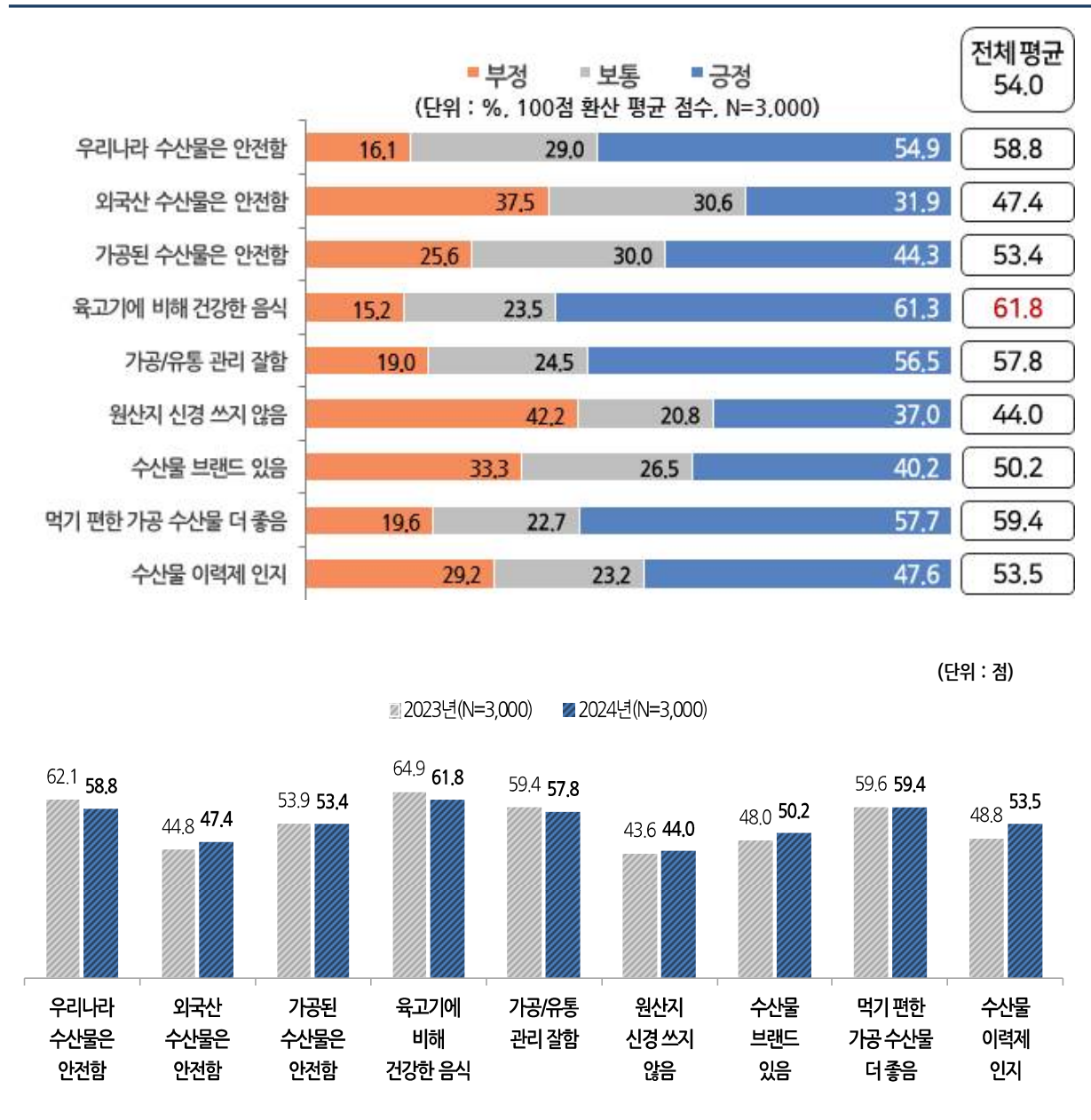


■ ‘수산물만은 육고기에 비해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응답은 61.8점으로 긍정적인 의견 우세

- 수산물 관련 의견을 살펴본 결과, ‘수산물만은 육고기에 비해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항목이 61.8점으로 가장 높고, ‘먹기 편하게 가공된 수산물이 더 좋다’라는 항목이 59.4점으로 두 번째로 높음

- 그 외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하다’와 ‘가공/유통 관리 잘함’ 항목은 각각 58.8점, 57.8점, ‘수산물 이력제 인지’는 53.5점으로 나타남

〈그림 34〉 수산물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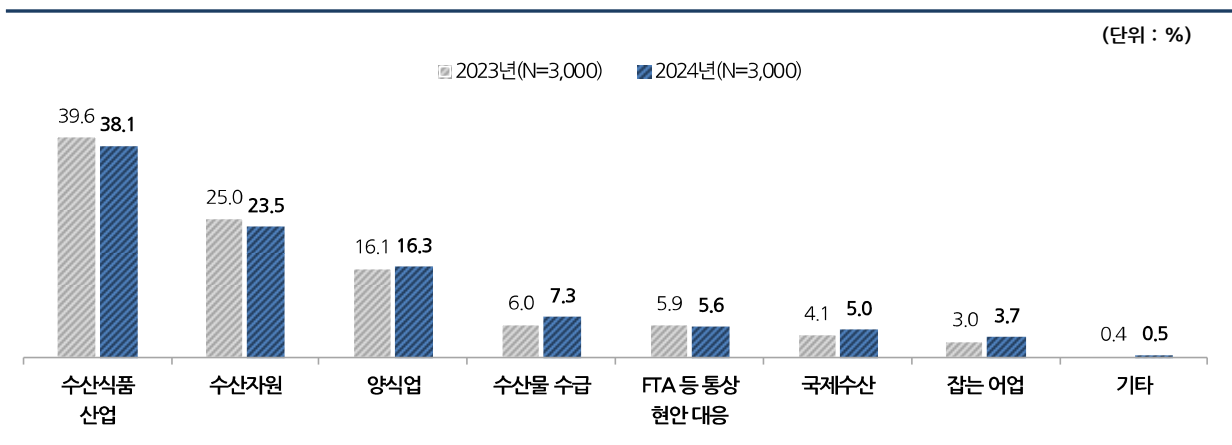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수산식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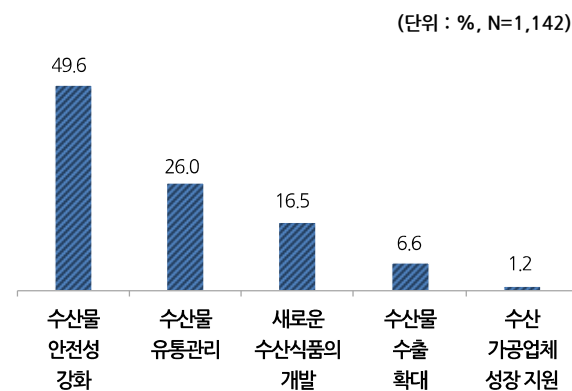
■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수산식품산업’이 가장 높은 38.1%

- 그 외 ‘수산자원’ 23.5%, ‘양식업’ 16.3%, ‘수산물 수급’ 7.3%, ‘FTA 등 통상 현안 대응’ 5.6%, ‘국제 수산’ 5.0%, ‘잡는 어업’ 3.7% 순으로 나타남
- ‘수산식품산업’, ‘수산자원’, ‘양식업’ 3개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산식품산업 분야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자원 분야는 불법조업 단속 강화, 양식업 분야는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잡는 어업 분야는 어선어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 수산물 수급 분야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산물 생산 확대, 국제 수산 분야는 국제수산 기구에서의 역할 확대 및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통상 현안 대응 분야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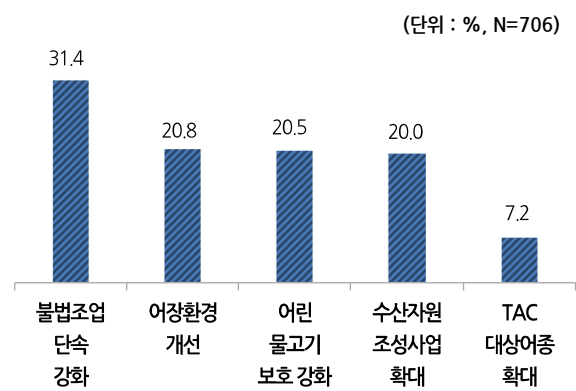
〈그림 35〉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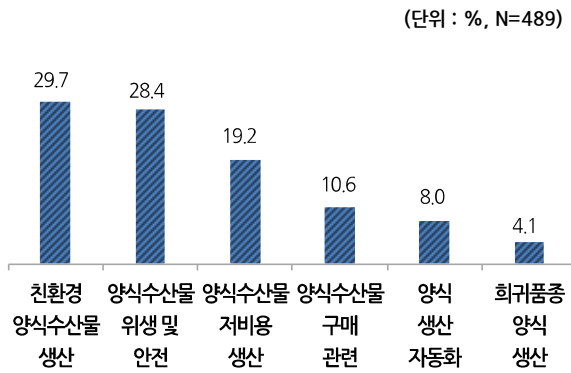
〈그림 35-1〉 수산식품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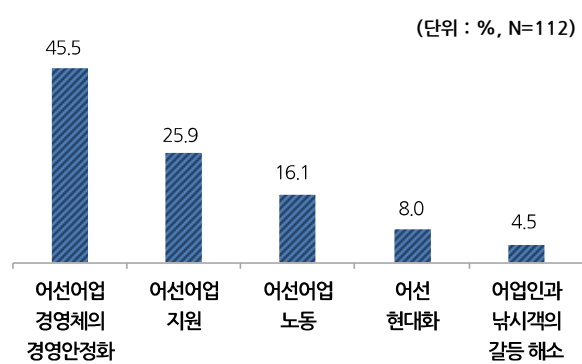
〈그림 35-2〉 수산자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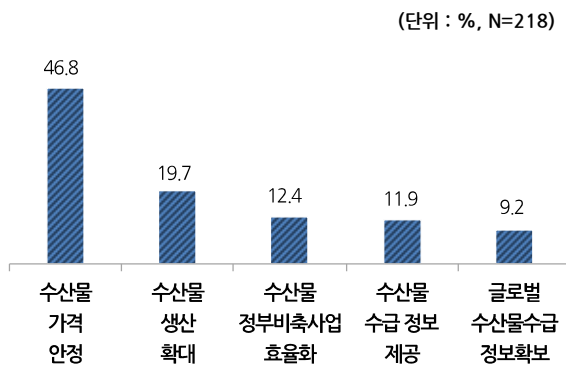
〈그림 35-3〉 양식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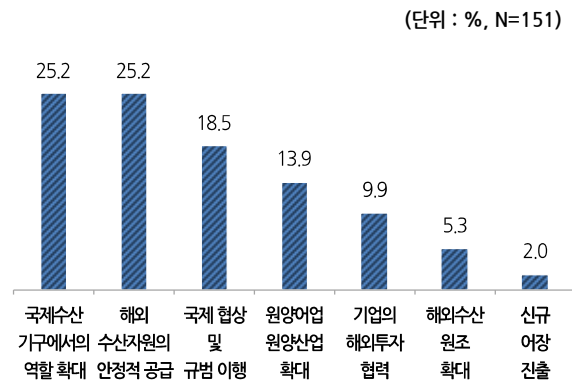
〈그림 35-4〉 잡는 어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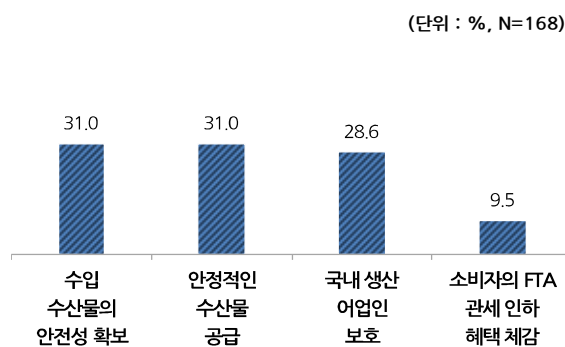
〈그림 35-5〉 수산물 수급 분야



〈그림 35-6〉 국제 수산 분야



〈그림 35-7〉 통상 현안 대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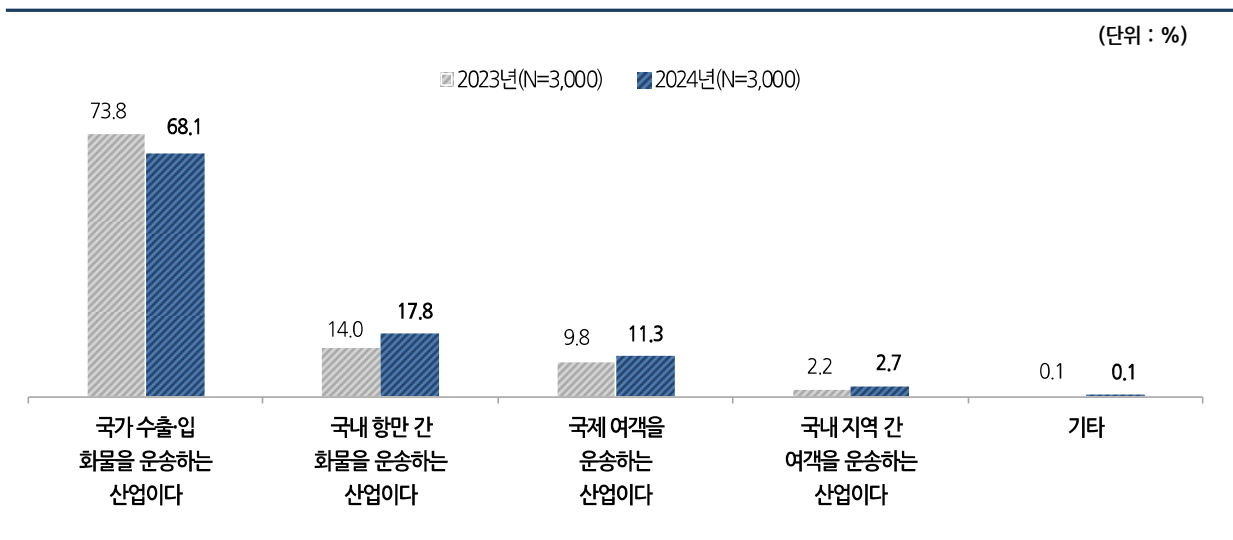
해운 분야

국민의 대다수, 해운업은 '국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으로 인식

■ 해운업과 관련해 상기되는 주요 이미지는 '국가 수출·입 화물 운송'(68.1%)으로 조사

- 1위 항목인 '국가 수출·입 화물 운송'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주로 50대(71.9%), 60대 이상(73.8%)인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내 항만 간 화물을 운송'(17.8%), '국제여객을 운송'(11.3%), '국내 지역 간 여객을 운송'(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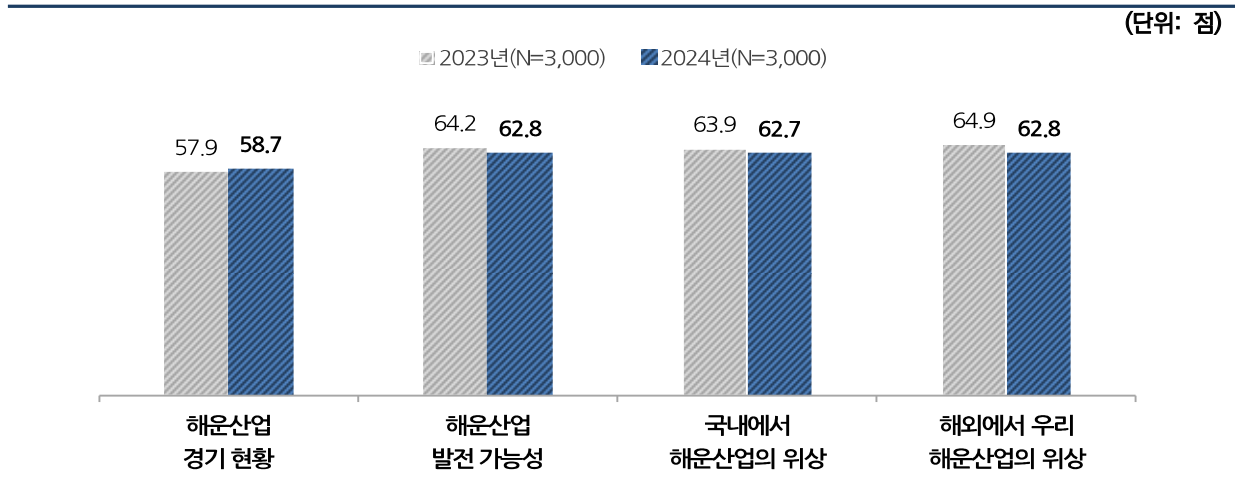
〈그림 36〉 해운업 상기되는 이미지



■ 해운업에 관한 국민의 전반적인 평가는 '해운산업 발전 가능성',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 관련 응답이 높은 편

- 발전 가능성(64.2점→62.8점), 해외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64.9점→62.8점),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위상(63.9점→62.7점)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37〉 해운업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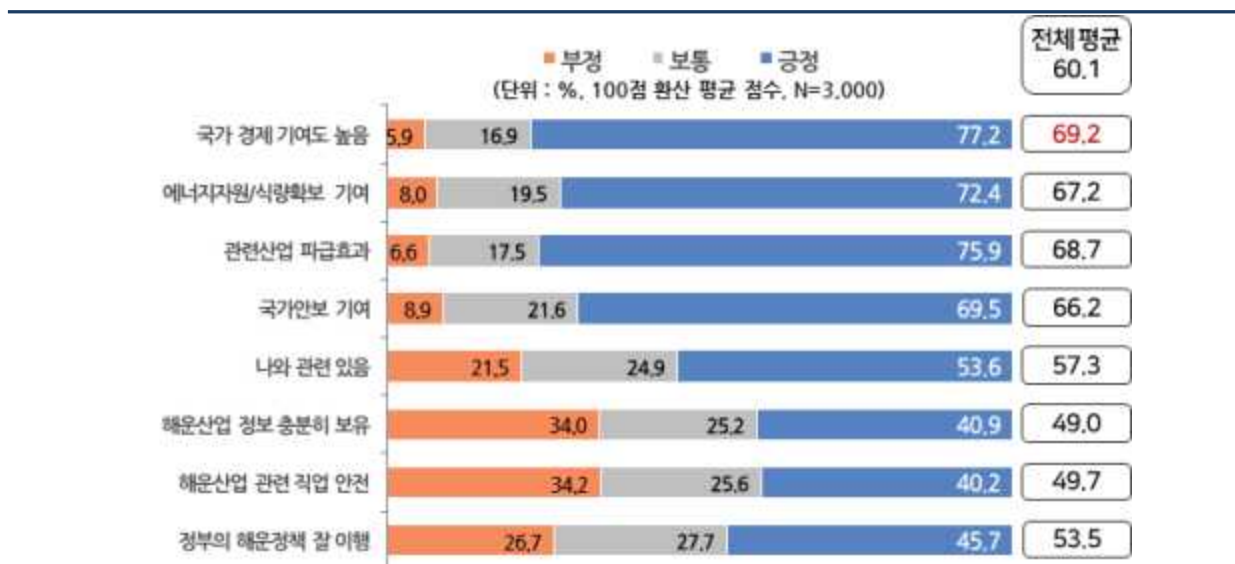


국민은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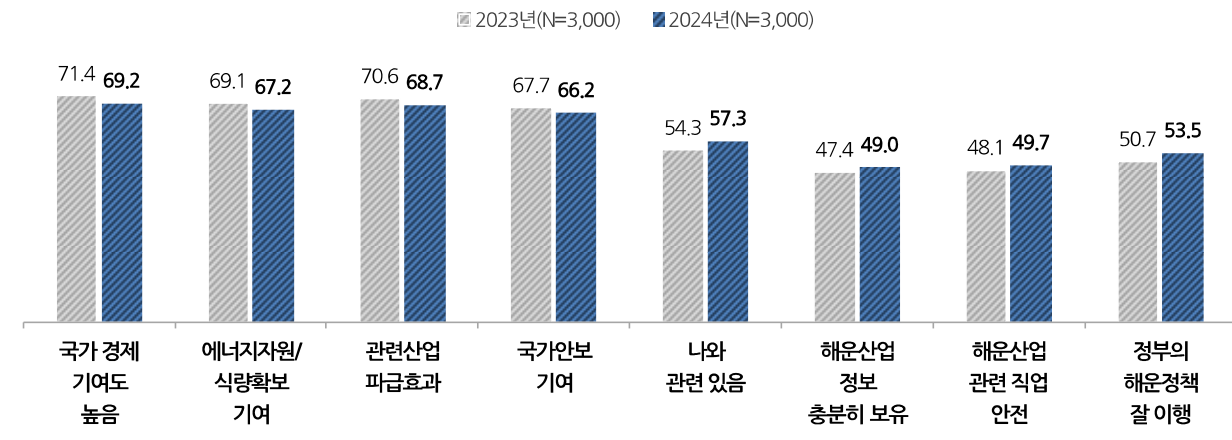
■ 해운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가 전년대비 2.2점 하락하였으나 69.2점으로 1위

- 그 뒤를 이어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68.7점, ‘에너지자원과 식량확보 기여’ 67.2점, ‘국가안보 기여’ 6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해운산업 관련 직업 안전’(49.7점)과 ‘해운산업 정보 충분히 보유’(49.0점)는 낮은 평가를 받음

〈그림 38〉 해운 분야 의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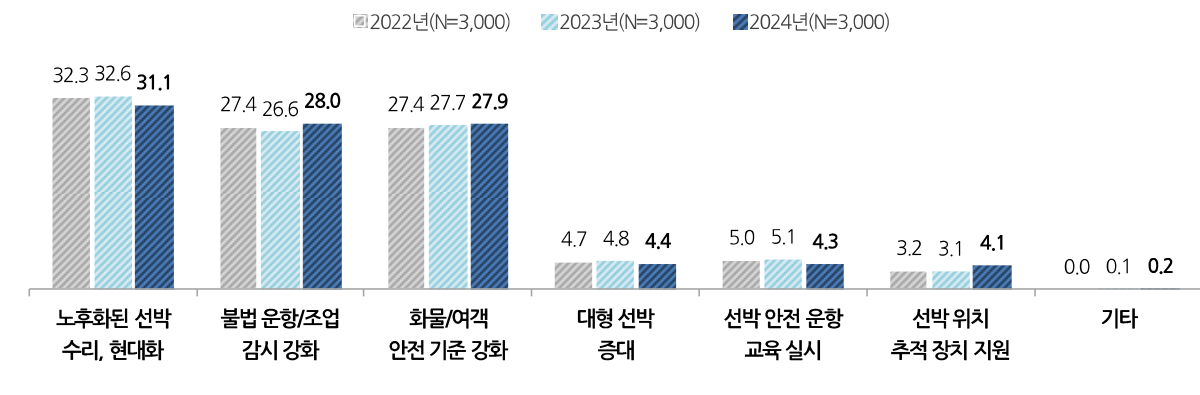
해상안전 시급성,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수리, 현대화’ 3년 연속 1위

■ 국민들이 평가한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할 항목으로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라는 응답이 31.1%로 1위

- 다음으로, ‘불법 운항/조업 감시 강화’(28.0%), ‘화물/여객 안전 기준 강화’(27.9%), ‘대형선박 증대’(4.4%), ‘선박 안전 운항 교육 실시’(4.3%), ‘선박 위치 추적 장치 지원’(4.1%)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2위 항목이었던 ‘화물/여객 안전 기준 강화’는 전년 대비 0.2%p 상승한 반면 3위 항목이었던 ‘불법 운항/조업 감시 강화’는 전년 대비 1.4%p 상승하여 두 번째 중요한 항목으로 기록함
-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 ‘불법 운항/조업에 대한 감시 강화’, ‘화물/여객 안전 기준 강화’ 등의 3개 항목은 3년 연속 동일하게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남

〈그림 39〉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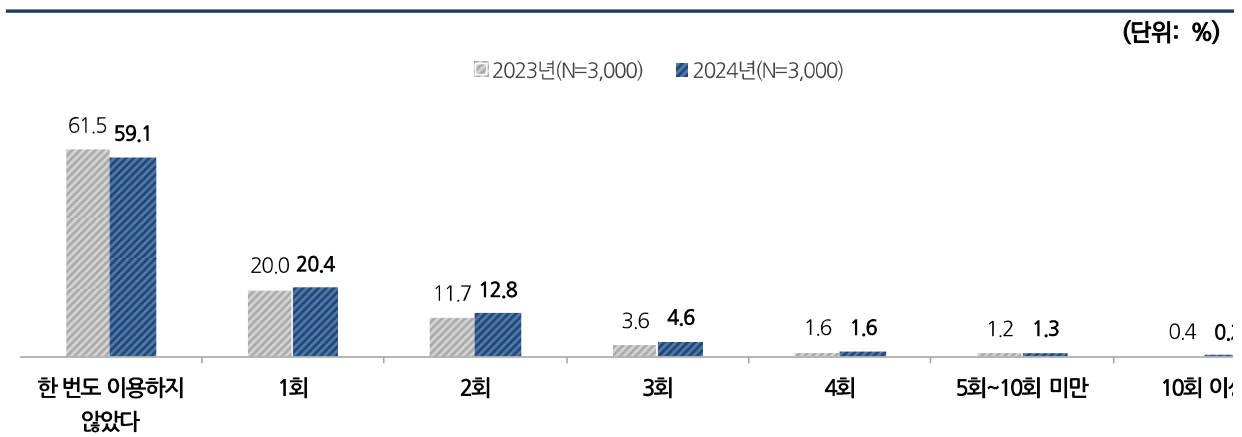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 이용 증가 추세

■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의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한 번도 이용 안 함'이 전년 대비 2.4%p 감소한 59.1%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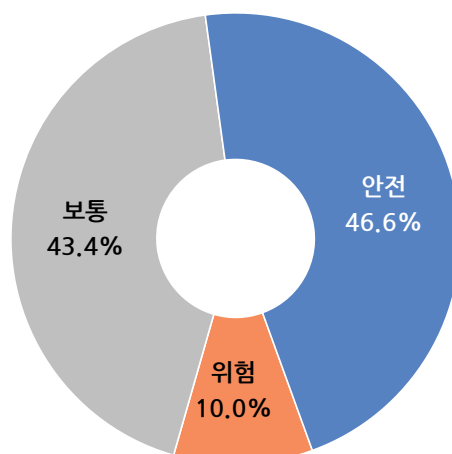
- 여전히 국민들의 과반수가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지 않은 수치는 높은 편이나, '1회'(20.4%), '2회'(12.8%), '3회'(4.6%) 이용 빈도는 전년 대비 증가함
- 연안여객선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매우 안전+대체로 안전) 응답이 46.6%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연안여객선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지님

〈그림 40〉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 이용 빈도



〈그림 41〉 연안여객선의 안정성

(단위:%, 100점 평균: 59.5점, N=3,000명)



향후 선박 화물운송 증가, 화물/여객 운송으로 기여할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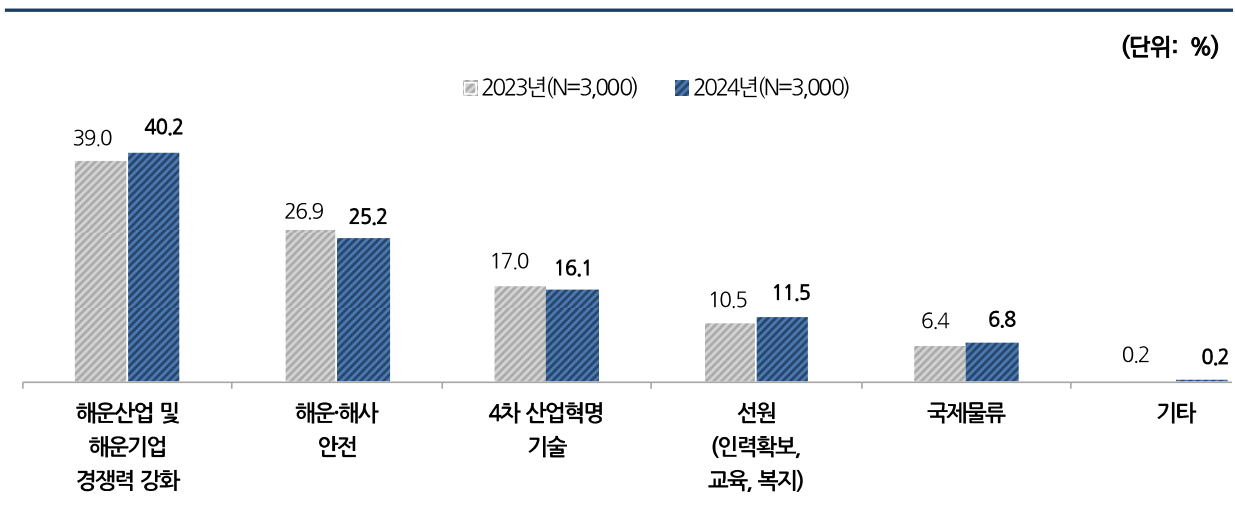
■ 향후 해운 분야의 전반적인 평가 조사 결과, ‘화물/여객 운송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와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 증가’ 등이 각각 66.5점으로 높게 조사

- 그 다음으로 ‘화물/여객 운송 일자리 증가’라는 항목이 62.0점을 기록함

■ 해운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40.2%로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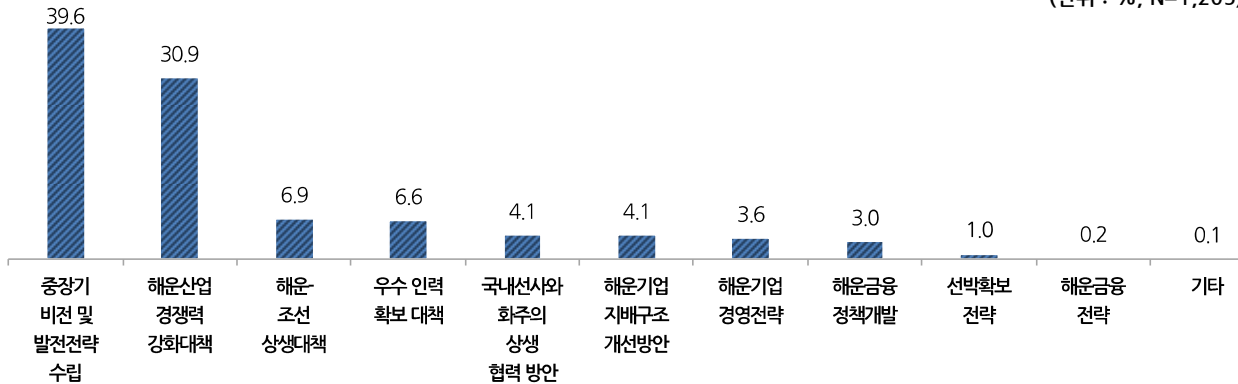
- 다음으로 ‘해운/해사 안전’은 전년 대비 1.7%p 하락한 25.2%,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년 대비 0.9%p 하락한 16.1%, ‘선원(인력확보, 교육, 복지)’는 전년 대비 1.0%p 상승한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해운산업/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선원 인력확보, 교육 및 복지 분야는 선원 복지 대책, 해운/해사 안전제고 분야는 기술 및 장비개발 연구,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는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국제물류 분야는 국제 복합운송으로 나타남

〈그림 42〉 해운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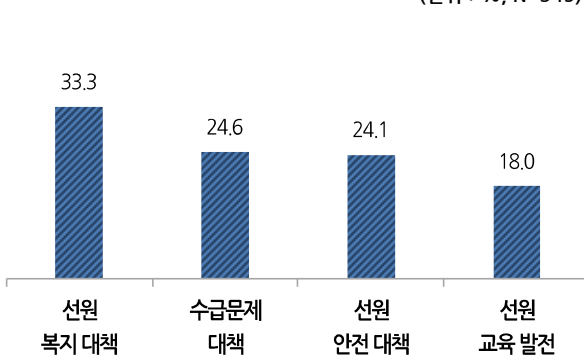
〈그림 42-1〉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단위 : %, N=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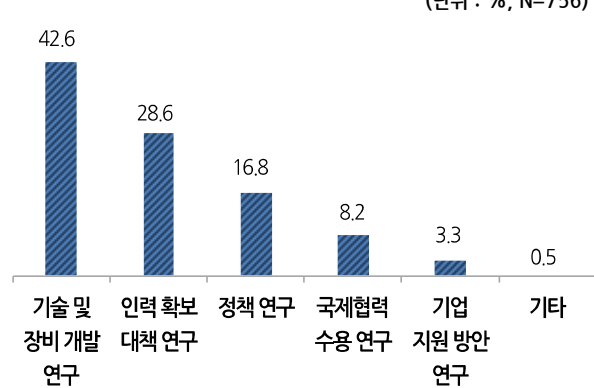
〈그림 42-2〉 선원 인력확보, 교육 및 복지 중 중요 분야

(단위 : %, N=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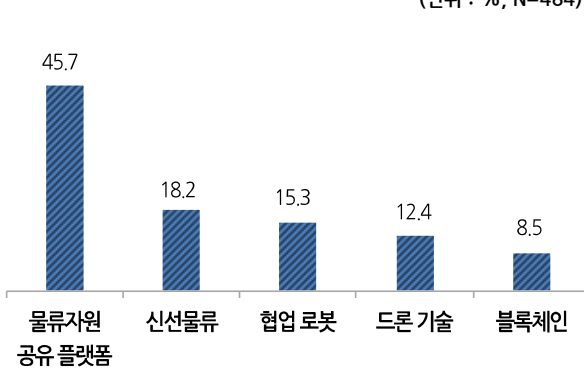
〈그림 42-3〉 해운/해사 안전 분야

(단위 : %, N=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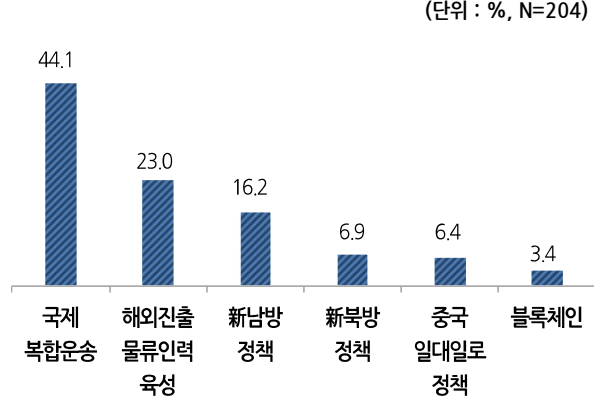
〈그림 42-4〉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

(단위 : %, N=484)



〈그림 42-5〉 국제물류 분야

(단위 : %, N=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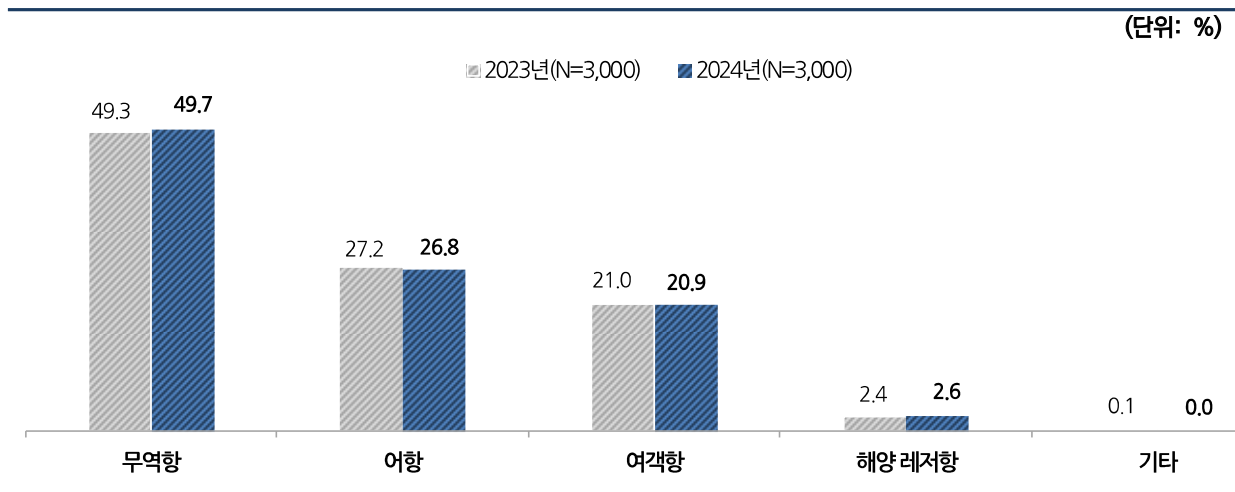
항만 분야

3년 연속, 항만이 상기하는 이미지는 무역항으로 인식

■ 항만이 상기하는 이미지에 관해 국민 절반이 '무역항'으로 인식

- 항만이 상기하는 이미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무역항'이라는 응답은 49.7%로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어항'(26.8%), '여객항'(20.9%), '해양 레저항'(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무역항'에 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산/경남/울산'에서 비중이 높았음

〈그림 43〉 항만 상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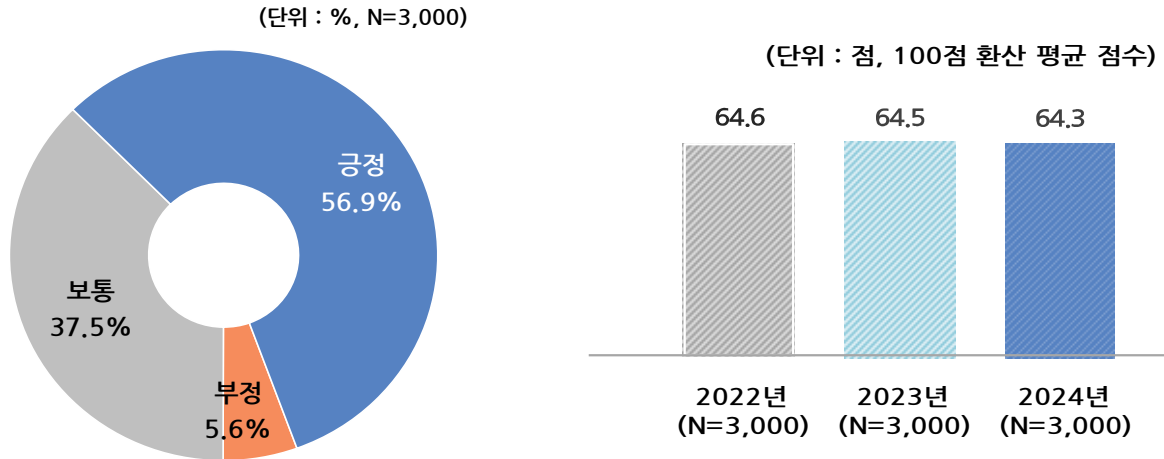


국민은 도시 인근 항만조성에 대해 긍정적

■ 도시 인근 항만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긍정' 응답이 56.9%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대체로 긍정+매우 긍정) 56.9%, '보통' 37.5%, '부정'(대체로 부정+매우 부정) 5.6%로 상대적으로 긍정에 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59.9%), 부산/경남/울산(61.8%), '농/임/어업'(61.2%), '현재 바다 인근 거주'(6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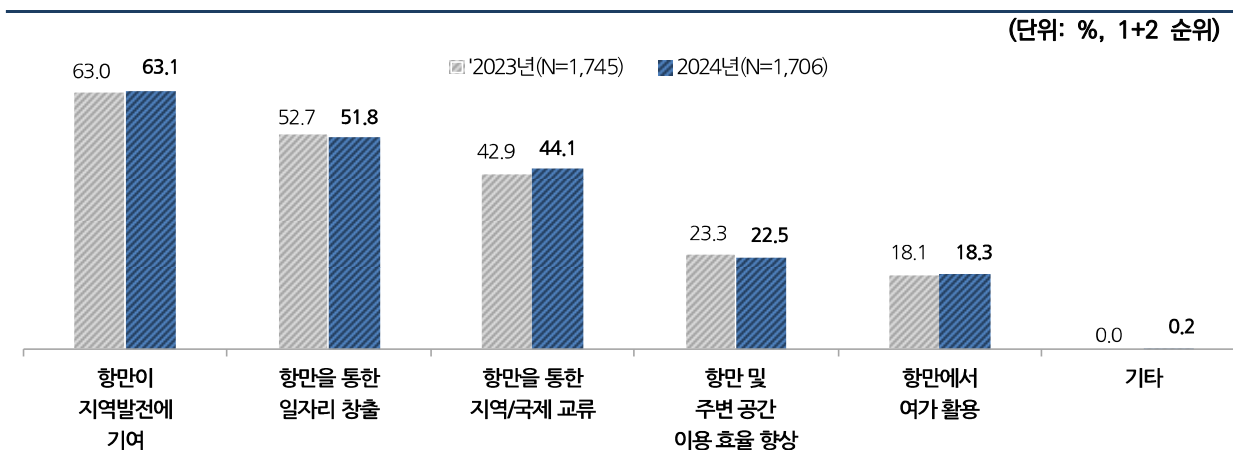
〈그림 44〉 도시 인근에 항만 조성 평가



■ 도시 인근 항만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항만이 지역발전에 기여’가 가장 높아

- 도시 인근 항만조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n=1,706)들은 ‘항만이 지역발전에 기여’라는 의견에 전년과 유사한 63.1%(1+2순위 중복응답)로 가장 높게 응답함
- ‘항만이 지역발전에 기여’에 관한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제주’ 72.5%, ‘학생’ 67.1% 등에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51.8%), ‘항만을 통한 지역/국제 교류’(44.1%), ‘항만 및 주변 공간 이용 효율 향상’(22.5%), ‘항만에서 여가 활용’(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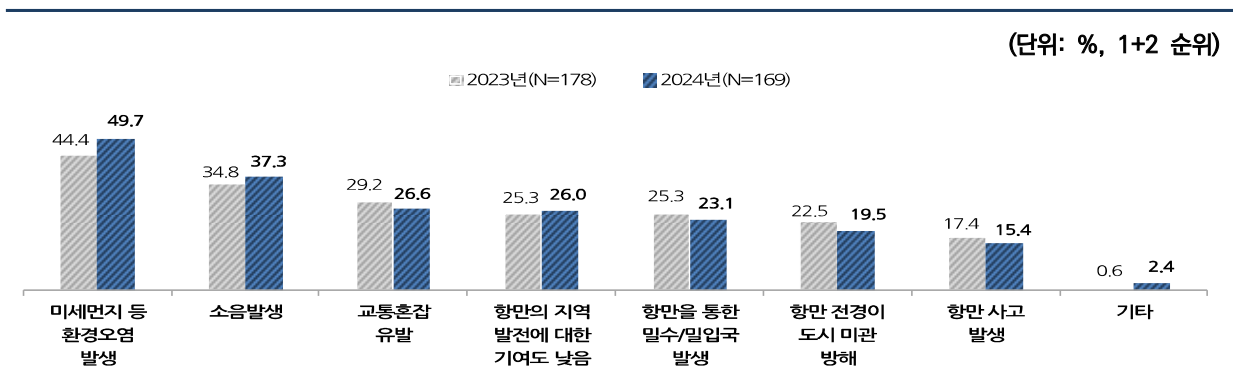
〈그림 45〉 도시 인근 항만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 도시 인근 항만조성의 부정적인 평가는 ‘환경오염 발생’ 문제가 주된 이유

- 도시 인근 항만조성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n=169)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이 49.7%(1+2순위 중복응답)로 가장 높게 응답함
- 다음으로 ‘소음발생’(37.3%), ‘교통혼잡 유발’(26.6%), ‘항만을 통한 밀수/밀입국 발생’(26.0%), ‘항만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낮음’(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도시 인근 항만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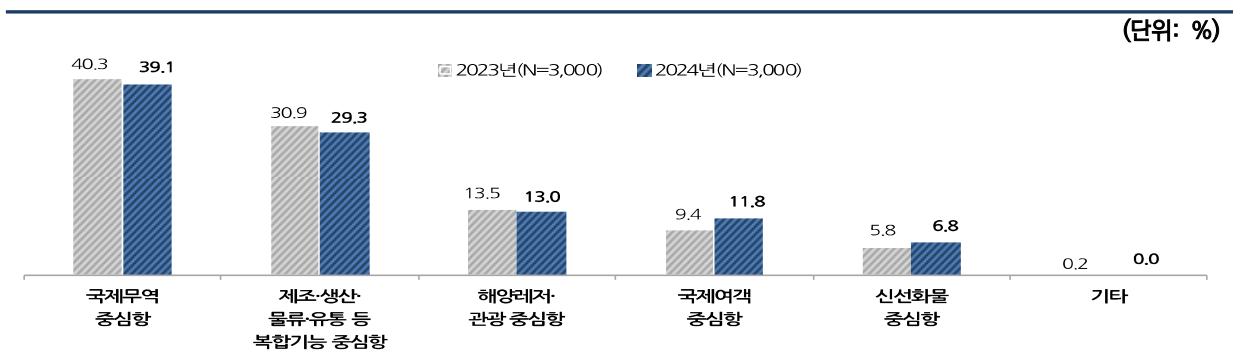


향후 항만의 발전 방향은 ‘국제무역 중심향’ 기능이 가장 높아

■ 향후 항만의 발전 방향은 ‘국제무역 중심향’과 ‘복합기능 중심향’이 각각 1, 2위를 차지

- 향후 항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국제무역 중심향’(39.1%), ‘제조·생산·물류·유통 등 복합기능 중심향’(29.3%)의 응답이 높았음
- ‘국제무역 중심향’에 관한 응답은 대구/경북지역(43.8%)이 높았으며, ‘제조·생산·물류·유통 등 복합기능 중심향’ 응답은 강원/제주지역(36.4%)에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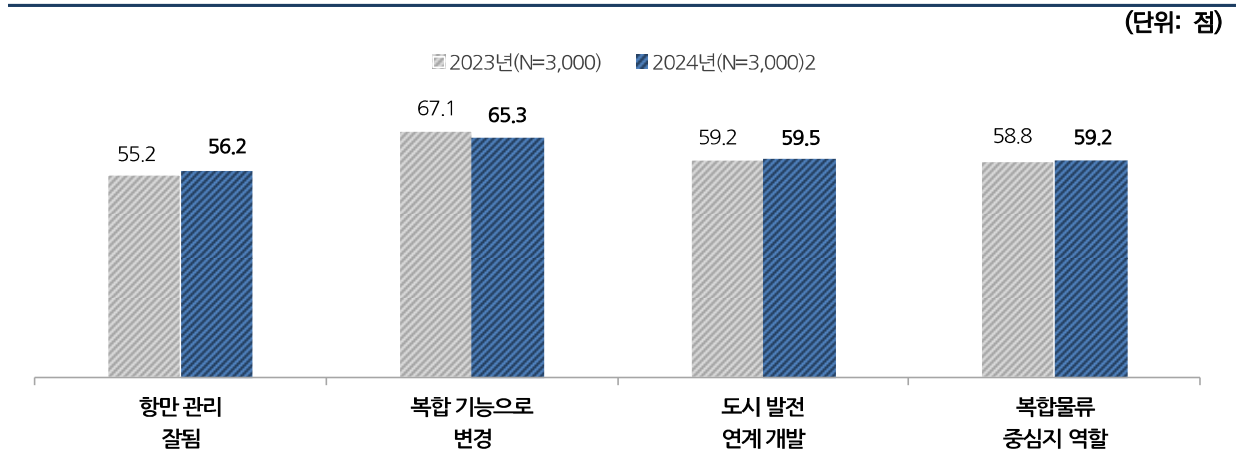
〈그림 47〉 항만·물류분야 항목별 전반적 평가



■ 항만물류 분야, ‘상업적 외 관광, 문화 역할을 겸하는 복합 기능으로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65.3점

- 다음으로 ‘우리나라 항만은 도시발전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다’가 59.5점으로 나타남

〈그림 48〉 항만물류 분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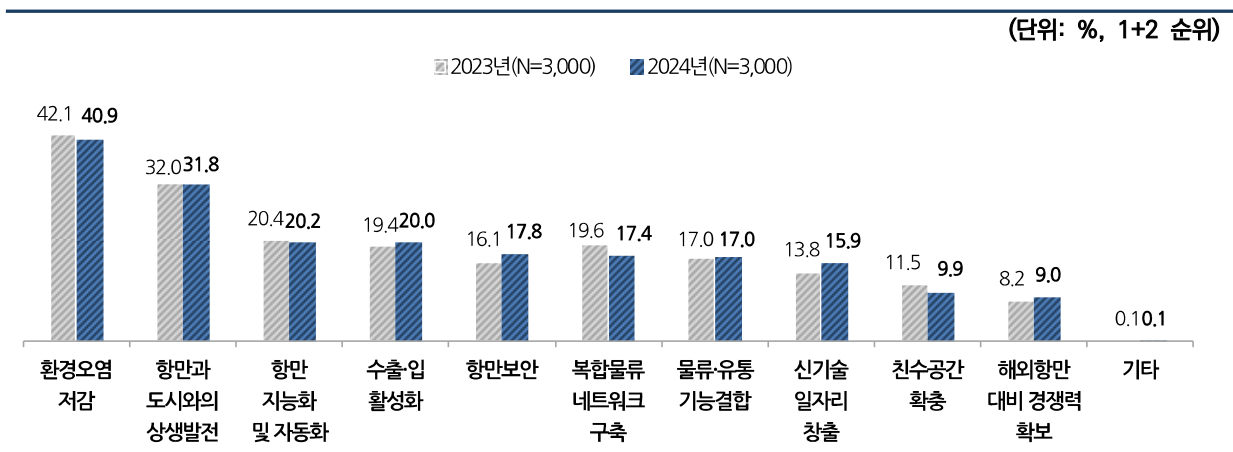


항만은 환경오염 저감 노력에 높은 관심 필요

■ 항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환경오염 저감’이 가장 중요

- 항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환경오염 저감’이 40.9%, 항만과 도시와의 상생발전 31.8%, ‘항만 지능화 및 자동화’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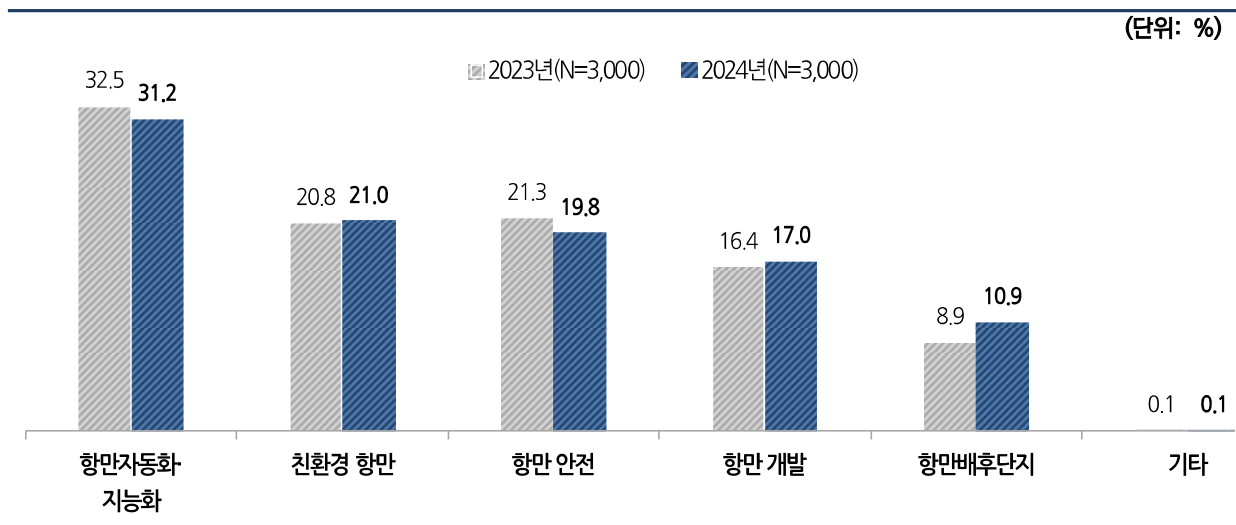
〈그림 49〉 항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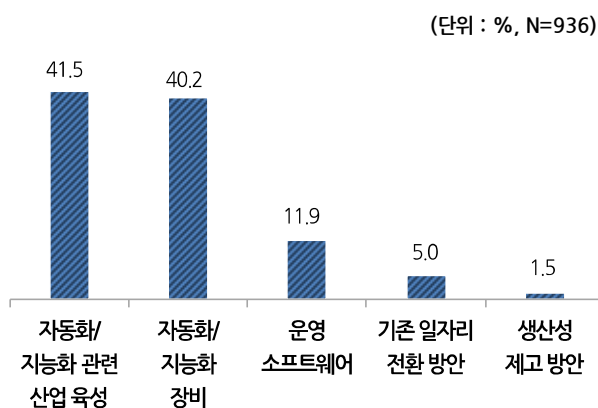
■ 항만 분야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항만 자동화 및 지능화’가 31.2%로 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 ‘친환경 항만’(21.0%), ‘항만 안전’(19.8%), ‘항만개발’(17.0%), ‘항만배후단지’(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항만 자동화 분야는 자동화 지능화 관련 산업 육성, 항만 안전 분야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 항만개발 분야는 항만 재개발, 항만 배후단지 분야는 일자리 창출, 친환경 항만 분야는 항만 수질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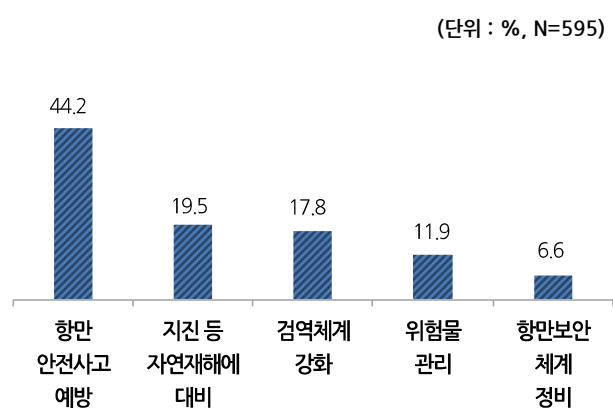
〈그림 50〉 항만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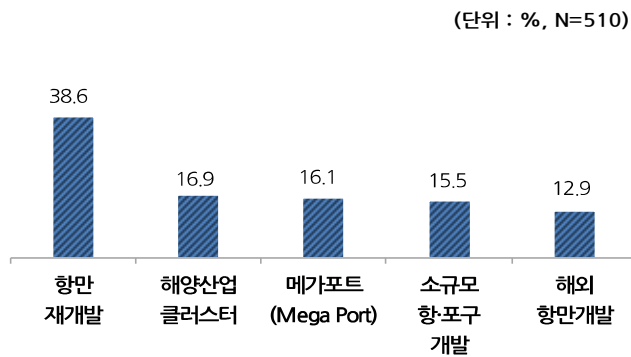
〈그림 50-1〉 항만 자동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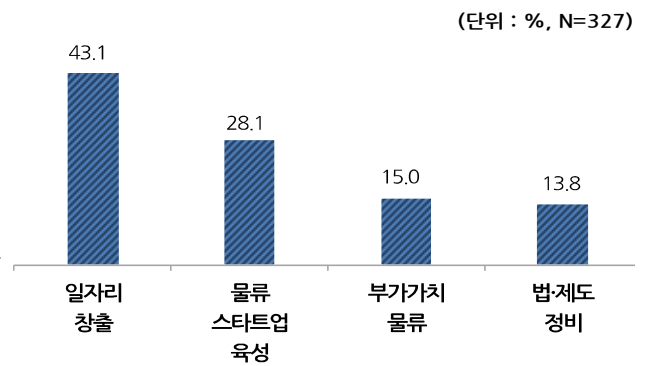
〈그림 50-2〉 항만안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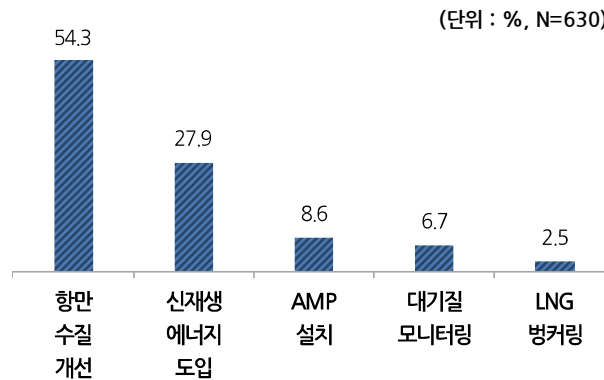
〈그림 50-3〉 항만개발 분야



〈그림 50-4〉 항만 배후단지 분야



〈그림 50-5〉 친환경 항만 분야



국민인식 변화 분석(2019년 대비 2024년)

해양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

■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2019년 대비 2024년에 점수가 상승하여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

- 국민은 해양수산이 ‘세계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이며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고 ‘국토와 바다를 지킨다’는 의견에 관해 2019년 대비 각각 8.8점, 8.7점, 8.7점 높게 평가함
- ‘해양수산이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중요하다’는 인식과 ‘국토와 바다를 지킨다’는 의견은 2024년에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이 해양이 지닌 자연적, 국가안보적 역할과 기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해양수산이 ‘세계 무역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견에 관해 국민은 2019년 대비 각각 7.9점, 7.5점 높게 평가함

〈표 2〉 해양수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증감
국가경제 발전 기여	70.1	76.9	6.8
식량안보 기여	71.3	77.7	6.4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	73.2	81.9	8.7
일자리 창출	68.4	75.9	7.5
사회/문화적 공익 증진	67.5	74.1	6.6
세계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70.1	78.9	8.8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70.3	77.1	6.8
국토와 바다를 지킴	71.5	80.2	8.7
세계 무역 네트워크 통합	69.7	77.6	7.9

선진국과 비교해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은 더 우수

■ 2024년 해양수산 분야에 관해 다른 해양 국가와 비교 평가한 결과, 우수 분야는 ‘선박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 열세 분야는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 수준’으로 높게 조사

- 2019년 대비 우수 분야로는 ‘선박(조선·해양플랜트)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운송 수단 이용 수준’, ‘항만 인프라 및 물동량 확보 수준’이 각각 22.6%p, 22.5%p, 19.8%p 상승함
- 2019년 대비 열세 분야로는 ‘지역 주민 복지와 연계된 연안 도시 활성화 수준’,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및 어민 복지 수준’, ‘희귀 해양생물종 보호·관리 수준’이 각각 19.1%p, 14.7%p, 13.9%p 상승하여 더 열세인 것으로 평가함

〈표 3〉 해양수산 분야 선진국과 비교 평가

(단위: %, %p)

해양수산 분야 항목	우수			열세		
	2019년	2024년	증감	2019년	2024년	증감
선박(조선·해양플랜트) 건조 활성화 지원 수준	33.2	55.8	22.6	10.9	9.1	-1.8
항만 인프라 및 물동량 확보 수준	23.4	43.2	19.8	14.6	12.0	-2.6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해상운송 수단 이용 수준	19.5	42.0	22.5	9.9	13.1	3.2
국민 여가활동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 수준	32.7	29.5	-3.2	16.2	21.4	5.2
수산물 수급 안정성 확보 수준	29.6	26.0	-3.6	13.7	21.0	7.3
수산 식품 안전 확보 수준	33.7	25.7	-8.0	16.8	26.8	10.0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관리 수준	17.6	24.9	7.3	29.4	33.9	4.5
선박사고 예방 및 항만 안전·보안 유지 수준	13.8	24.8	11.0	25.1	24.4	-0.7
해양 재해 예방 및 대응 수준	16.6	22.8	6.2	26.2	30.2	4.0

해양수산 분야 항목	우수			열세		
	2019년	2024년	증감	2019년	2024년	증감
연구개발(R&D) 통한 해양과학 기술 선진화 수준	17.1	20	2.9	19.3	30.0	10.7
해양유물·문화 보전 및 확산 수준	17.0	14.3	-2.7	18	27.5	9.5
희귀 해양생물종 보호·관리 수준	15.2	13.7	-1.5	30.5	44.4	13.9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수준	8.1	13.2	5.1	19.3	30.9	11.6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및 어민 복지 수준	17.5	12.5	-5.0	20.1	34.8	14.7
친환경 해운·항만산업 육성 수준	15.3	12.2	-3.1	19.5	22.7	3.2
지역 주민 복지와 연계된 연안 도시 활성화 수준	16.0	12.2	-3.8	14.5	33.6	19.1
선원 고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수준	10.0	6.5	-3.5	17.7	30.9	13.2

국민의 직접적인 해양 이용과 활동은 2019년 대비 증가

■ (해양 분야) 2019년 대비 2024년 국내 해안 방문 횟수, 국내 해안 체류 기간 모두 증가

- 국내 해안 방문 횟수를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 살펴보면, 2019년 45.1점에서 2024년 50.9점으로 5.8점 상승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안에 방문한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해안 체류 기간 역시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 살펴보면 2019년 37.2점에서 2024년 45.9점으로 8.7점 상승해 바닷가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국내 해안 방문 횟수 및 체류 기간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증감
국내 해안 방문 횟수	45.1	50.9	5.8
해안 체류 기간	37.2	45.9	8.7

■ (수산 분야) 2019년 대비 2024년 ‘귀어·귀촌 의향’은 증가한 반면, ‘수산물에 육고기에 비해 건강한 음식’이라는 의견은 소폭 하락

- 귀어·귀촌 의향을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면, 2019년 41.6점에서 2024년 46.0점으로 4.4점 상승함
- 한편, 수산물 관련 의견 중 ‘육고기에 비해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항목은 2019년 63.4%에서 2024년 61.8%으로 1.6점 하락함

〈표 5〉 수산 분야 국민인식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증감
귀어/귀촌 의향	41.6	46.0	4.4
육고기에 비해 건강한 음식	63.4	61.8	-1.6

■ (해운 분야) 2019년 대비 2024년 해운 분야의 일반 국민인식은 대체로 개선됨

- 해운분야 의견 중 ‘해운산업 경기 현황’, ‘선박화물 운송’, ‘국가경제 기여도’ 항목이 2019년 대비 2024년 각각 4.4점, 3.7점, 3.6점 상승함
- 그 외 ‘관련 산업 파급효과 있음’, ‘향후 해운산업 발전가능성’, ‘해운산업의 위상, 발전가능성’의 항목 또한 3.1점, 2.8점, 2.8점 상승하여 대체로 2019년 대비 해운 분야의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표 6〉 해운 분야 국민인식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증감
해운산업의 위상	59.0	61.8	2.8
해운산업 경기 현황	54.3	58.7	4.4
향후 해운산업 발전가능성	60	62.8	2.8
국내에서 해운산업의 위상	61.3	62.7	1.4
해외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	60.5	62.8	2.3
해운산업의 역할 및 기여도	60.2	60.1	-0.1
국가경제 기여도 높음	65.6	69.2	3.6
에너지 자원/식량 확보에 기여	64.5	67.2	2.7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증감
관련 산업 파급효과 있음	65.6	68.7	3.1
국가안보에 기여	64.1	66.2	2.1
선박화물운송 증가	62.8	66.5	3.7
연안여객선이용빈도	23.1	24.8	1.8

■ (항만 분야) 2019년 대비 2024년 도시 인근 항만조성, 항만 관련 일자리 증가 등 항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

- 도시 인근 항만조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2019년 58.6점에서 2024년 64.3점으로 2019년 대비 5.7점 상승해 향후 항만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역할을 겸하는 복합 기능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향후 항만 물류 분야의 의견 중 ‘우리나라 항만을 통한 화물 처리량이 늘어날 것이다’와 ‘항만 관련 일자리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각각 3.3점, 2.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항만 분야 국민인식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구분	2019년	2024년	2019년 대비 증감
도시 인근 항만 조성에 관한 지지도	58.6	64.3	5.7
화물처리량 증가	61.4	64.7	3.3
항만관련 일자리 증가	59.1	61.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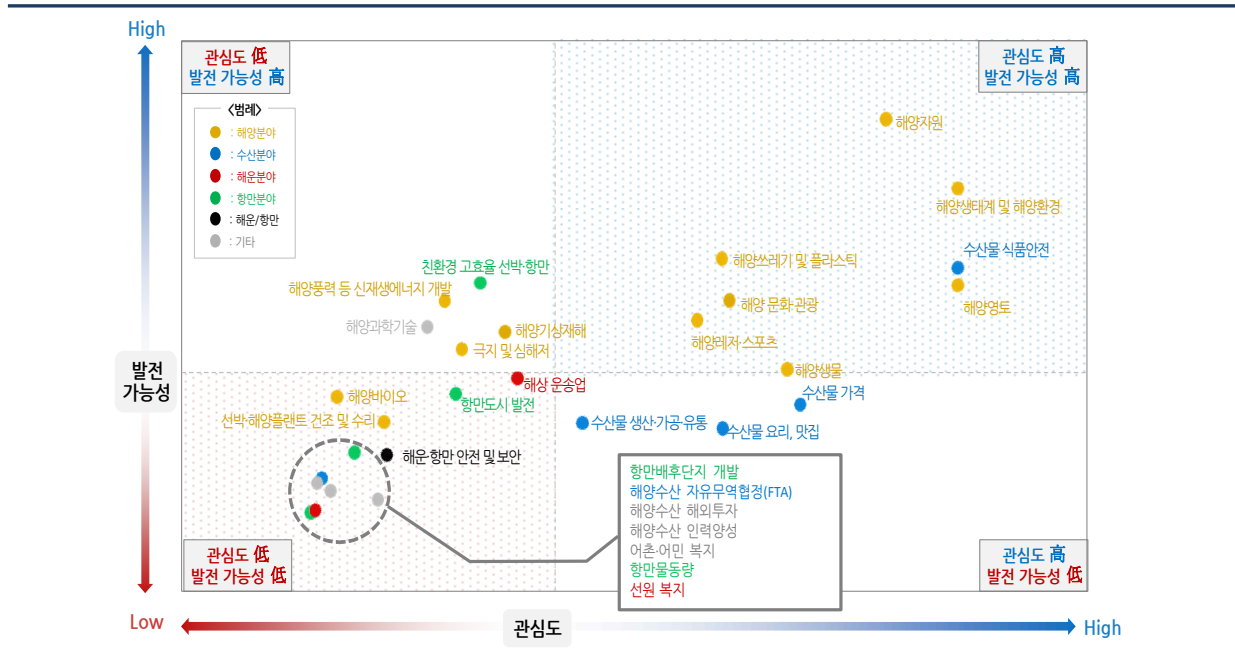
종합 평가

국민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수산', '해양' 항목에 대한 관심도와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

■ 해양수산 관심도와 발전가능성을 IPA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수산', '해양' 항목에 대한 관심도와 발전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해양수산 28개 세부 분야를 각각 '해양', '수산', '해운', '항만' 4개 분야로 나눠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수산', '해양'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해양'이 '수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해양수산 28개 항목 중 해양 분야의 '환경 및 자원'과 수산 분야의 '수산물 식품안전' 관련 항목에서 관심도와 발전 가능성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해양영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 문화·관광',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해양테저스포츠' 등 해양 환경 및 자원, 여가 활동에 대한 항목과 '수산물 식품안전', '수산물 요리, 맛집', '수산물 가격' 등 수산 식품에 대한 항목에 관심이 높음
- 특히, 해양 환경 및 자원에 대한 항목들과 수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항목은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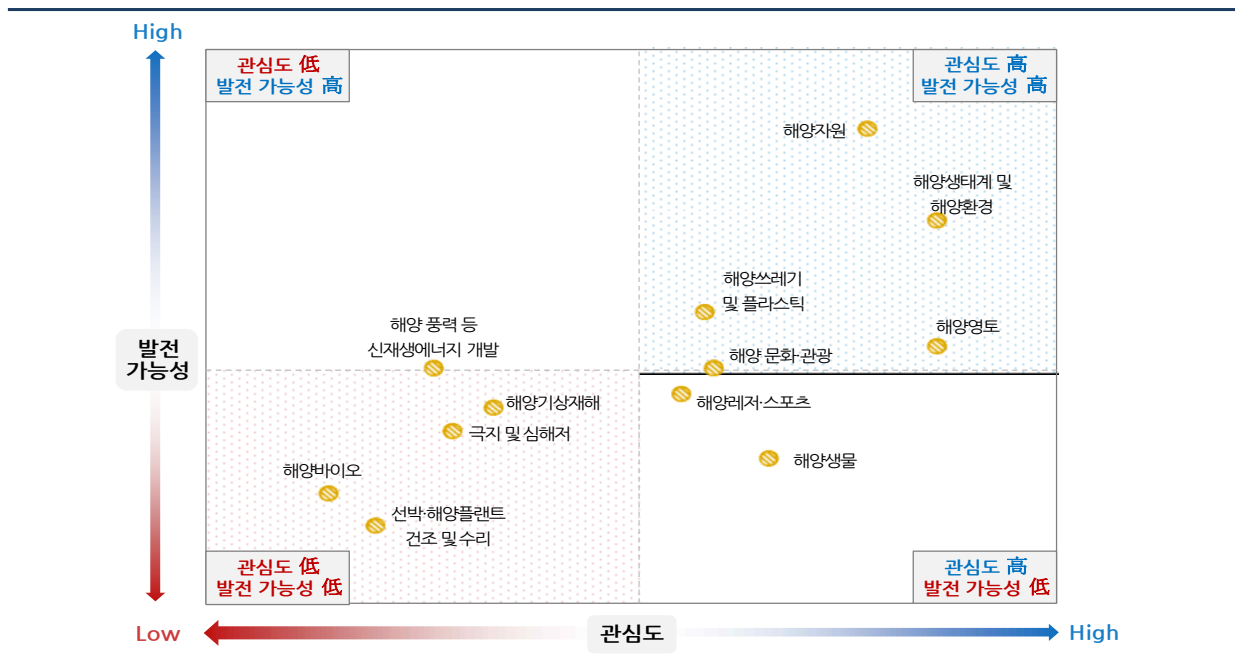
〈그림 51〉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IPA 분석(28개 항목)



■ 해양 분야는 국민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생태계 및 환경’, ‘해양자원’, ‘해양영토’,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해양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해양 분야의 ‘해양영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 문화·관광’,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등 환경과 자원에 대한 항목들이 관심도와 발전 가능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해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관심도는 낮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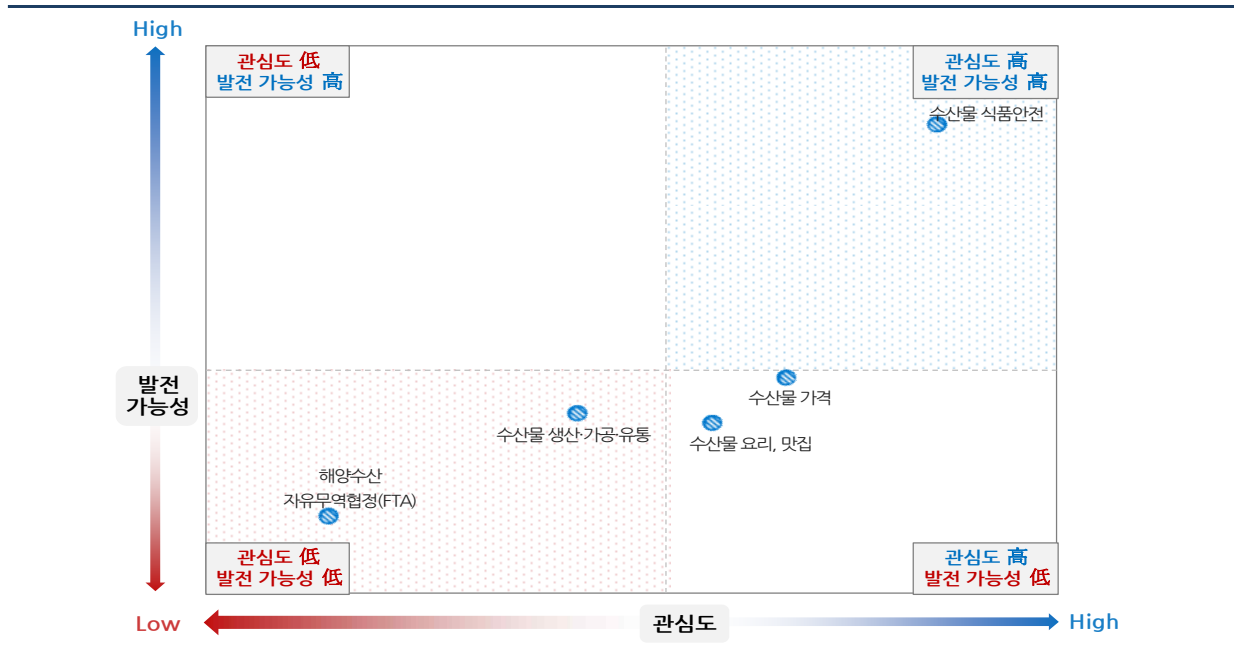
〈그림 52〉 해양 분야 IPA 분석(12개 항목)



■ 수산 분야 또한 국민의 생활과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된 ‘수산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수산 분야 IPA 분석 결과, ‘수산물 식품안전’이 관심도와 발전 가능성 모두 높게 평가되었으며, ‘수산물 가격’, ‘수산물 요리, 맛집’ 항목은 높은 관심도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
- 반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자유무역협정’은 관심도와 향후 발전 가능성 모두 낮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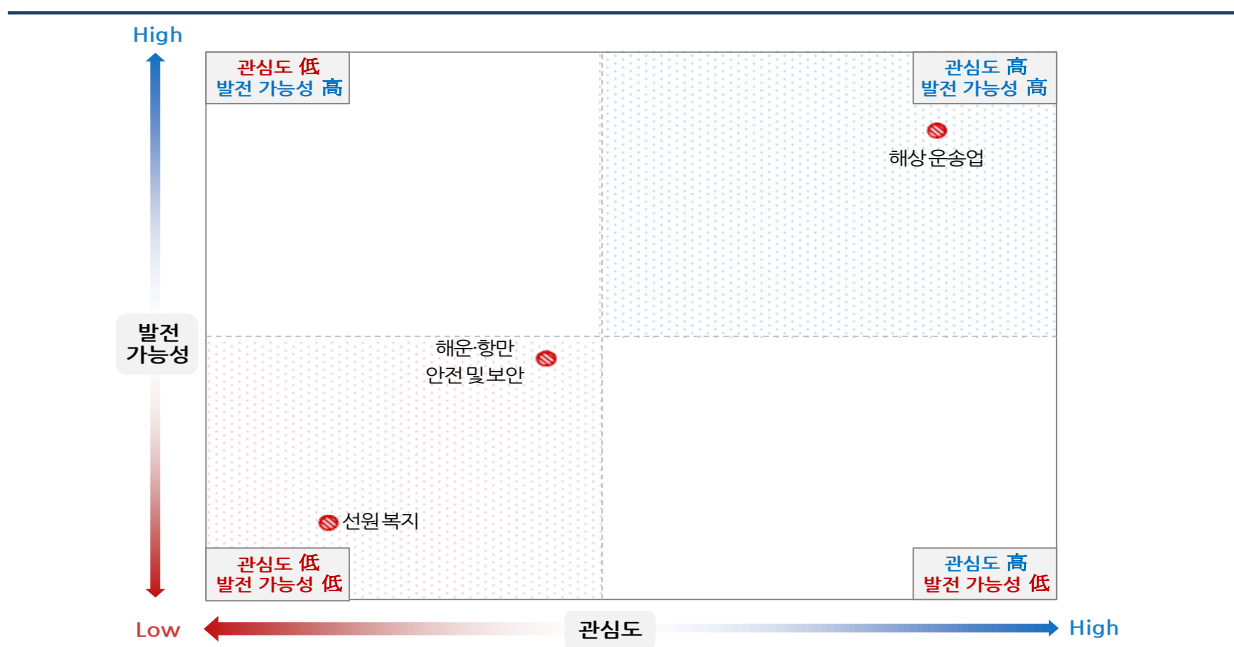
〈그림 53〉 수산 분야 IPA 분석(5개 항목)



■ 해운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해운 분야의 경우 '해상운송업'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해상 운송업' 항목이 관심도와 발견 가능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해운·항만 안전 및 보안'과 '선원 복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와 발견 가능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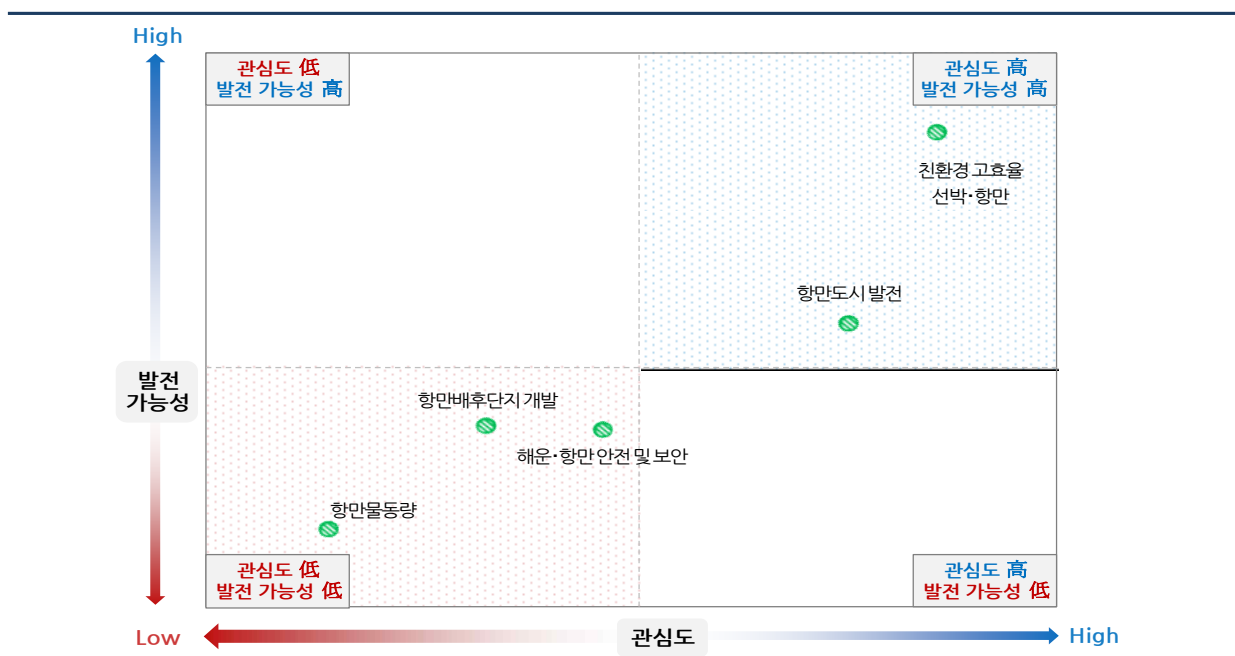
〈그림 54〉 해운 분야 IPA 분석(12개 항목)



■ 항만 분야의 경우 ‘친환경 고효율 선박·항만’, ‘항만도시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항만 분야 IPA 분석 결과, ‘친환경 고효율 선박·항만의 개발·운영’, ‘항만도시 발전’ 항목은 관심도와 발전 가능성이 모두 높음
-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해운·항만 안전 및 보안’, ‘항만물동량’ 등에 대한 관심도와 향후 발전 가능성은 다소 낮게 조사됨

〈그림 55〉 항만 분야 IPA 분석(12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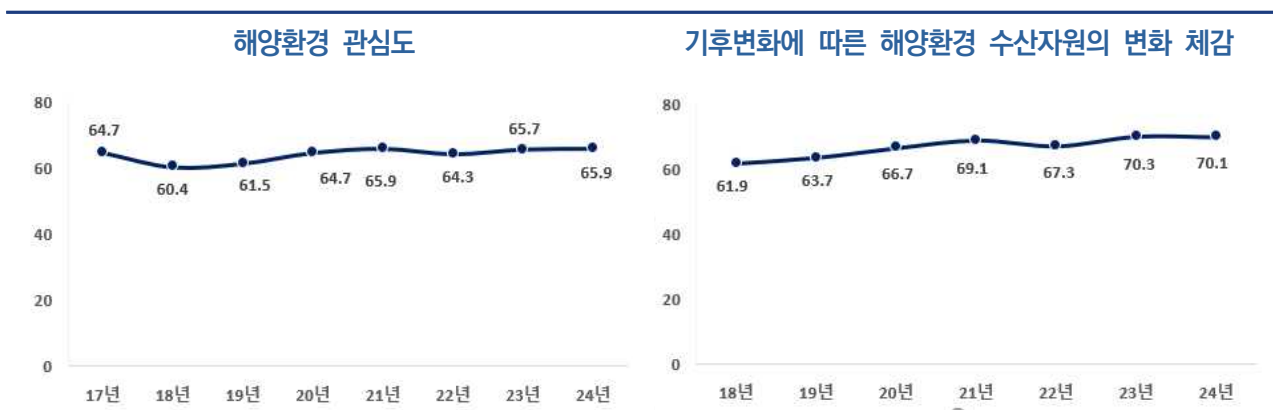
해양수산 정책 키워드는 ‘환경과 안전’

■ (환경) 해양수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 ‘해양환경 및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

- 2024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은 해양수산이 생태계 보호, 식량안보, 국가경제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 이슈 중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가 현재 시급성과 미래 기여도 양 측면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됨
-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2018년 최저 60.4점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다시 65.9점을 기록하여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수산자원의 변화 체감의 경우에도 2018년 61.9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증체감의 정도가 높아져 2024년 70.3점을 기록함

〈그림 56〉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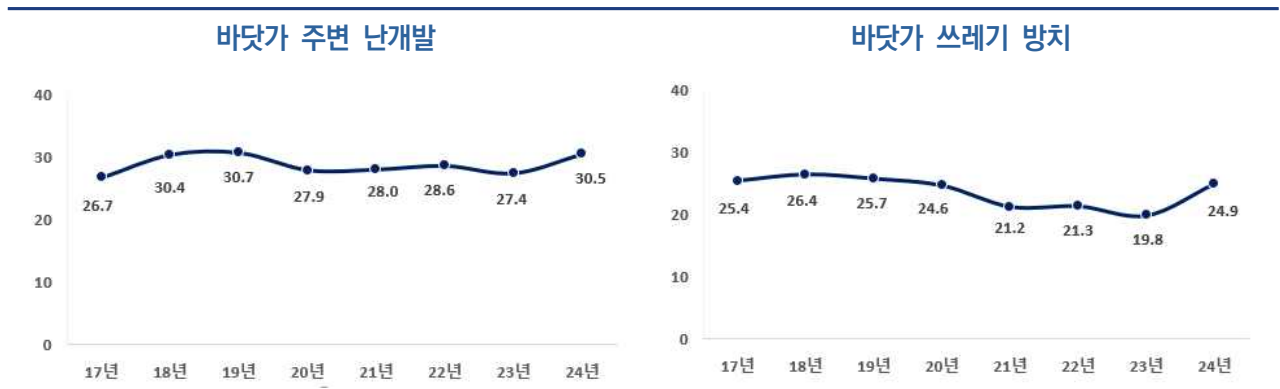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해안가 문제점에 대해 항목별로 심각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바닷가 주변 난개발’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최고치인 30.4점, 30.7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시기에 등하락을 반복하며 2024년 다시 30.5점을 기록함
- 또한 ‘바닷가 쓰레기 방치’의 경우 2023년 19.8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다시 24.9점을 기록하여 해안가 문제 심각도에 관한 국민의 체감도는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해양쓰레기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 해결을 위해 민간 참여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87.5%로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57〉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단위: 점, 응답 결과를 역수로 변환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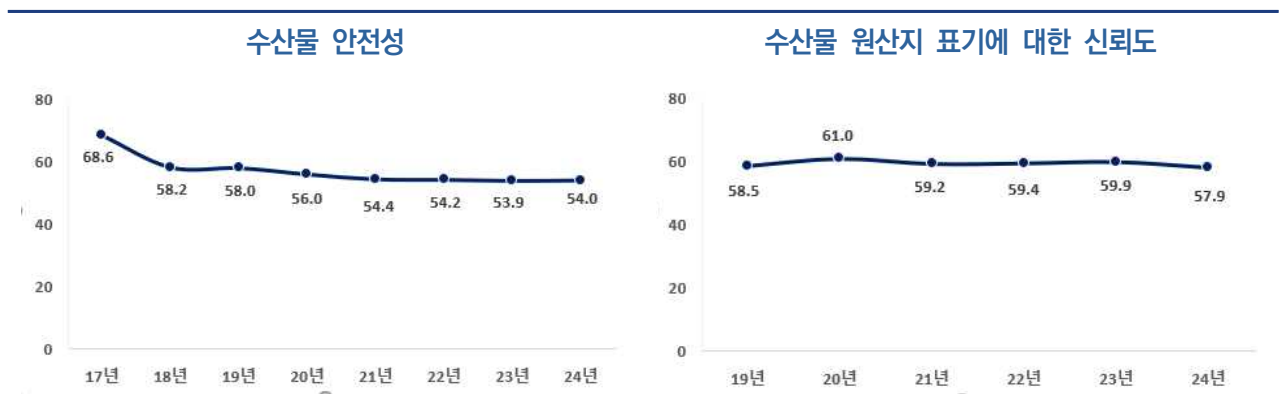


■ (안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운·해사 안전 제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환경과 안전 관련 분야

-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청결한 수질 관리와 유류오염, 적조, 폐독 예방 및 대응방안, 수산 분야는 수산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유통관리 방안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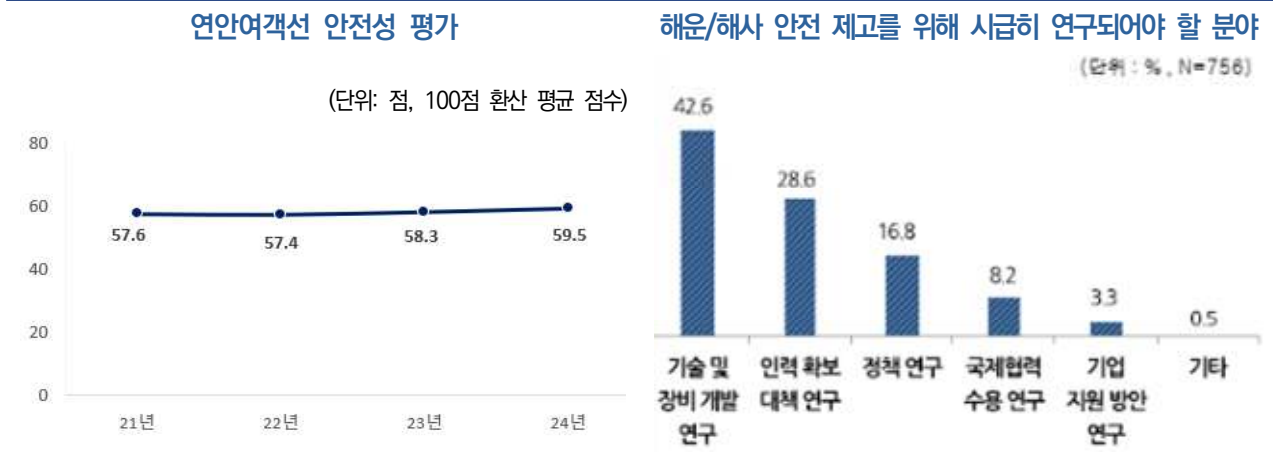
〈그림 58〉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수산분야)

(단위: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 해운 분야의 ‘연안여객선 안전성 평가’는 2021년 57.6점에서 ’24년 59.5점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상승하여 국민의 인식이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해운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에 관해서는 ‘해운/해사 안전 분야’가 ‘해운산업 및 해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어 2순위를 차지, 특히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장비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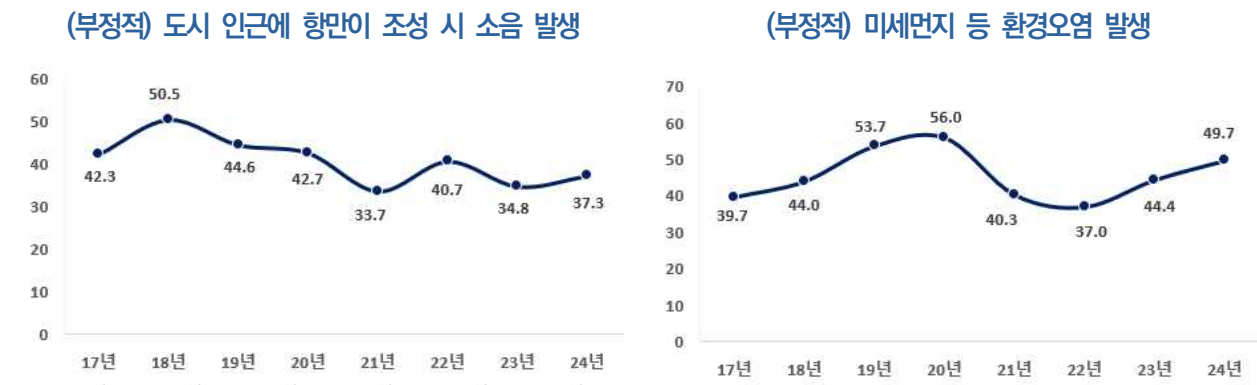
〈그림 59〉 해운·해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해운분야)



- 항만·물류 분야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과 ‘검역체계 강화’가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항만개발의 부정적 의견으로는 ‘소음 발생’,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을 꼽았음

〈그림 60〉 도시 인근 항만 조성 부정적 평가(항만분야)

(단위: %)



■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 수립 집중 필요

- 해양수산 분야는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운·해사 안전, 항만 지역 내 환경보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향후 조사 결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태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국민의 수요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이 필요

해양 국가에 관한 높은 인지와 낮은 정책 체감도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

■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75.5%가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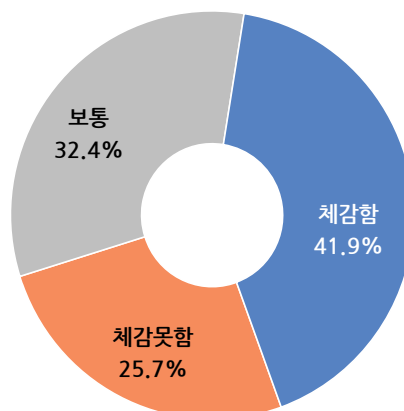
- 해양분야 전반적 평가 결과, 해양은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77.9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여 국민 대부분이 해양은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이다'라는 의견에 관해서는 83.7%가 동의하여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소 해양수산 분야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 '관심 있음'이 44.4%, '보통' 31.1%, '관심 없음' 24.5%로 국민은 대체로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체감

- 해양수산 정책효과 체감도에 관한 질문에는 '체감한다'(6~10점)는 응답이 41.9%, '보통'(5점)은 32.4%, '체감하지 못한다'(0~4점)는 25.7%으로 조사됨
- '체감한다'는 응답은 남성(45.4%), 50대(45.5%), 현재 바다 인근 거주자(49.7%)에서 높은 편이고 '체감하지 못함'이라는 응답은 여성(27.4%), 낮은 연령대, 강원/제주(32.6%), 바다 인근 거주 미경험자(27.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61〉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

(단위:%, N=3,000)



■ 향후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를 개선시키고 양자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인식하고, 국민의 75.5%가 해양수산 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지니고 있어 높은 관심도와 인식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해양수산 정책효과의 체감도는 41.9%로 관심도 및 인식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양자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인식과 관심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양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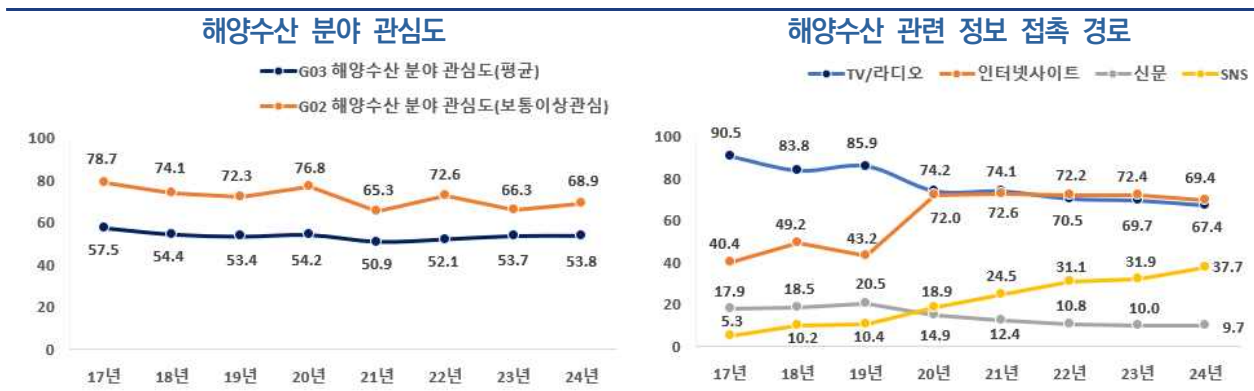
지역·연령별로 차별화된 정책과 홍보전략이 필요

■ 지역·연령·성별·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홍보전략 마련

- 연령대가 높을수록 TV/라디오를 통한 정보 접촉률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고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2017년 대비 2024년의 경우 TV/라디오의 접촉이 줄고, 인터넷사이트의 접촉이 2017년 대비 29.0%p 증가한 69.4%를 기록, SNS 또한 32.4%p가 증가한 37.7%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대부분 TV/라디오에서 접해왔지만, 2024년 현재 TV/라디오의 경우 23.1%p 감소한 67.4%를 기록, 신문의 경우 8.2%p 감소한 9.7%를 기록하였음

〈그림 62〉 해양수산 분야 관심도

(단위: %)



■ 정책 홍보 효과가 낮은 분야, 추가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선택적·전략적 홍보 필요

- 과거와 달리,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뉴미디어인 SNS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홍보가 낮은 분야,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이들 분야에 대해 홍보역량을 보다 선택적·전략적으로 투입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